


2-1-2002

결혼위기 부부를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

Byung Sang Lee 이병상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병상, "결혼위기 부부를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2.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A MODEL OF LAY FAMILY MINISTRY FOR THE
COUPLES IN MARITAL CRISIS**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BYUNG SANG LEE

FEBRUARY 2002

결혼위기 부부를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엄예선 교수

이 병 상

2002년 2월

Abstract

A Model of the Lay Family Ministry for the Couples in Marital Crisis

Byung Sang Lee

Doctor of Ministry

200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 rapid increase of divorce rate in Korea can be one of the prominent influences of industrialization or Westernization. It is reported that in the year of 2000 one couple divorced when three couples married in Korea. Unfortunately, divorce seems to be similarly prevalent even in the church. According to Barna Research Group(Ventura, CA), devout Christians who think themselves born again, tend to divorce more easily than non-Christians do. There has not yet come out a survey report on the divorce rate in the Korean Church. However, the situation must not be so different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churches.

This makes us ask: Why the divorce rate of the Korean society increases so rapidly when the Korean churches grow explosively? Why is the divorce prevalent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Why do the Korean churches and pastors stand helpless on these divorce matters?

There can be many reasons for their failure to deal with the divorce problem. Among them two primary reason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more detail: growth-driven or pastor-centered ministry philosophy of the Korean churches and pastors and their failure to recognize the essence/identity of the Church as a healing, encouraging and edifying body. The Korean Churches and pastors did not allow the lay persons to take part in a pastoral care for the troubled couples, for they considered any pastoral care(so also counselling) as uniquely belonging to the pastors. But this ministry philosophy is not supported by the Bible, because the Bible calls every Christian as a member of the body, who is responsible to edify the

whole body with his/her own gifts. The back-from-the brink couples share a strong tool, which is testimony of successful overcoming of the troubles/crises in marriage. If they are allowed to get involved in the pastoral care for the troubled couples, they can help them best. And this will be found as a great gain for the pastor's ministry and the church as a bod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essence and identity of the church with a biblical perspective and to suggest a model of the lay ministry program for the troubled couples in the church. In chapter 2, we discuss on the current state of marriage crisis 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efforts made to solve this crisis by the Korean Churches. In chapter 3, we attempt to establish the biblical foundation of the lay ministry and ecclesiology(essence and identity of the church). In chapter 4, we consider the structural preparations which the Korean churches should make for the lay ministry and the healing community. In chapter 5, we observe the five lay ministry programs for the couples in marital crisis, which are being practiced in the American churches: The Third Option; Marriage Ministry; Tres Dias; Marriage Savers; and Caring Couples. The prominent feature shared by all of these is that the back-from-the brink couples are valued and trained and used for the troubled couples. In chapter 6, we attempts to suggest a Korean model of the lay ministry for the troubled couples, by setting out the basic principles and proposing some practical procedures. And in chapter 7, we gives our tentative conclusion to the thesis and prospect the lay ministry for the couples in marital crisis in the Korea Churches.

Theological Mentors: Yea Sun Eum Kim, Ph. D.

Jung Suck Rhee, Dr. theol.

감사의 글

그 동안의 목회를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가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늘 생각했지만 마음만 급했지 그 많은 교회의 업무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 중에 생각했던 것이 목회학박사 연장교육에서 목회를 통한 가정사역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 코스를 통해서 지도교수인 엄예선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통해서 졸업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문제가 있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가정들(back-from-the brink couples)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내의 문제 있는 가정들을 보살필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교회 안의 소외된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논문이 쓰여지기까지 내게 힘이 되어 주신 몇 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떻게하면 교회의 사명인 교회 안에서의 소외된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를 교회 안에서의 가정사역이라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해주시고 논문이 되어지기까지 저의 부족한점을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주신 엄예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이 되기까지 바쁘신 중에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성의를 다해 도와주신 황진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에 임해주신 목사님들과 Rainbow Tres Dias 51기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쓰여지기까지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 묵묵히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헌신해 온 사랑하는 세광선교교회 성도들과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곁에서 기도와 간구로 격려해 주고 최선을 다해 도와 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아들에게 이 논문을 기쁘게 드립니다.

2002년 2월

이 병 상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3 절 논문의 의의와 한계점	5
제 2 장 결혼위기 부부와 평신도 가정사역의 필요성	7
제 1 절 한국사회의 결혼위기	7
1. 가정의 위기	7
2. 위기의 원인 진단	9
제 2 절 한국교회의 평신도 가정사역의 현황	12
1. 평신도 가정사역의 필요성	12
2. 평신도 가정사역의 현황	15
제 3 장 평신도 사역과 치유공동체의 신학적 근거	17
제 1 절 공동체와 평신도의 정의	18
1. 공동체의 정의	18
2. 평신도의 정의	19
제 2 절 구약에서의 공동체와 평신도 사역	20
1. 하나님의 속성과 공동체	20
2. 태초의 평신도 사역	21
3. 타락과 하나님 의 상실	21
4. 아브라함과 하나님 의 공동체 의 회복	22
5. 제사장, 선지자, 사사들, 왕에 의한 사역	22
제 3 절 신약에서의 공동체와 평신도 사역	23
1. 예수에 의한 공동체 의 회복(재건)	23
2. 새로운 제사장 제도로서의 평신도 사역	24

3. 하나됨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25
4. 성령 강림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	25
5. 선지자적 평신도 사역	26
6. 왕권과 평신도 사역	27
7. 은사와 하나됨을 기반으로 하는 평신도 사역	27
제 4 장 치유공동체로서의 한국교회와 평신도 사역	29
제 1 절 치유공동체로서의 교회	29
1. 치유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	29
2. 교회 내의 치유의 힘	31
제 2 절 어떻게 한국교회를 치유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33
1. 목회철학의 준비	33
2. 평신도훈련	35
3. 치유공동체의 형성	37
제 5 장 결혼위기 부부를 돕기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들	40
제 1 절 The Third Option	40
1. The Third Option의 배경과 특징	40
2. 프로그램의 내용	42
3. 평가	53
제 2 절 Marriage Ministry	56
1. Marriage Ministry의 배경과 특징	56
2. 프로그램의 내용	57
3. 평가	62
제 3 절 Tres Dias	64
1. Tres Dias의 배경과 특징	64
2. 프로그램의 내용	66
3. 평가	70
제 4 절 Marriage Savers	72
1. Marriage Savers의 배경과 특징	72

2. 프로그램의 내용	74
3. 평가	75
제 5 절 Caring Couples Network	76
1. Caring Couples Network의 배경과 특징	76
2. 프로그램의 내용	76
3. 평가	78
제 6 절 종합적 평가	78
제 6 장 결혼위기 부부들을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	81
제 1 절 의식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 관한 제언	81
제 2 절 프로그램 측면에 관한 제언	84
1.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리	84
2. 프로그램 개발 단계들	87
가. 가정사역 위원회	87
나.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 찾기	88
다. 도움부부 훈련	88
라. 결혼위기 부부 지원사역	89
제 7 장 결론	91
부록	93
참고문헌	125
Vita	129

표 목 차

<표 2-1> 이혼건수 변화 추이	8
<표 2-2> 동거기간별 이혼	11
<표 5-1>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의 개요	42
<표 5-2> 17가지 원리(Action Statements)	5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한국사회가 서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이다. 한국의 인구통계청이 2001년 5월에 낸 결혼 및 이혼 통계 결과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33만 4천여 쌍이 결혼을 하고 12만여 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¹⁾ 이는 36퍼센트 정도의 이혼율을 보이는 것으로 3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혼하는 셈이 된다. 이혼 건수 면에 있어서는 10년 전에 비해 이혼이 약 2.6배 가량 증가했다(참고: 91년의 49,200여 건의 이혼).

인구통계청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 십년 간 대부분의 이혼이 부부불화(가족 간 불화 포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2000년도 전체이혼의 75.2퍼센트). 주목할 만한 것은 부부의 합의로 갈라서는 협의이혼이 1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내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비율도 60퍼센트를 웃돈다는 사실이다.²⁾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이혼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이혼율은 어떠한가? 미국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Barna Research Group(Ventura, CA)이 1999년 12월에 미국 전역에 있는 성인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혼 문제에 있어 비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³⁾ 이 4천명 가운데 11퍼

1) 인구통계청, “2000년 혼인,이혼 통계결과(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Online: <http://www.nso.go.kr/report/data/sypo2000.htm>.

2) 백태승, “이혼, 남의 일 아니다,” 중앙일보(미주판), 2001년 10월 4일자.

3) 바나 리서치 그룹의 홈페이지를 보라(Online: <http://www.barna.org/cgi-bin/PagePress.asp?PressReleaseID=39&Reference=C>). 보다 자세한 자료 비교를 위해서는 Online: http://www.religioustolerance.org/chr_dira.htm을 참조

센트가 현재 이혼 상태에 있다고 대답했고, 25퍼센트가 한번 이상 이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놀라운 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번 이상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27퍼센트나 되었다는 것이다. 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번 이상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24퍼센트였음을 감안할 때 27퍼센트라는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비 그리스도인들보다 스스로 중생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쉽게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이혼율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⁴⁾ 그러나 인구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10년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교회의 현실 역시 미국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특히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의 경우 이혼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가나 한인 새 가정 상담소⁵⁾에 의하면, 이혼 상담을 해오는 내담자들 중 80퍼센트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부정은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같은 구역 안에서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이혼이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도 무척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한국교회가 성장일변도에 있던 1990년대에도 한국사회의 이혼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가? 캘리포니아지역만 해도 1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토록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한인 이민교회 내에서 이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가? 왜 교회와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이혼에 대해서조차도 무기력하게 뒷짐만 지고 있는가?

물론 성적인 개방 조류에 대해 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의 경우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미국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결혼과 이혼 문제에 있어 사회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사회는 고사하고 교회내부에조차 이혼이 만연하도록 방치한 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하라.

4) 노상현, "이혼과 사회심리적 요인," 목회와 신학, 2001년 9월호, 96.

5) Gana Koreans New Family Counseling Center는 1261 N. Gilbert St. #153, Fullerton, CA 92833에 위치해 있으며 이귀녀가 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이 연구소의 공식적인 연구결과나 출판물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들은 바 본 연구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왜 한국교회는 가정의 위기 문제를, 특별히 이혼 문제를 방치했는가? 우리는 그 첫 번째 원인을 잘못된 교회 성장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가난과 질병을 떨치기 위해 경제적 성취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공히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기치를 내 걸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급성장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 지상주의는 필연적으로 질적인 저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한인 이민교회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가나 한인 새가정 상담소에 의하면, 교인들이 성적인 부정에 빠지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이혼이 만연하게 되는 데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를 바르게 가르치거나 견책하지를 못한다고 한다. 이런 견책으로 인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의 이와 같은 안이한 태도는 그들의 잘못된 성장 지상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교인들의 숫자만 많아지기만 하면, 교회가 질적으로 퇴보하든 어떻든 간에,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불문에 붙이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혼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두 번째 원인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body)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한 공동체를 이룬다.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구성원간의 삶이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cy)를 맺고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유기적인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인 것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질적 성장은 도외시한 채 양적 성장만을 추구했고,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대형 교회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화된 교회에서 교인들간의 상호적, 인격적 교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의 본질적 요소들 중의 하나인 공동체성도 점점 희박해지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동체성의 결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고통 당하는 지체들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개발을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데는 교역자 중심의 목회철학도 한 몫을 차지한다.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목회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목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교인들이 있음에도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급기야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무리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알고 있다해도 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목회자들만의 몫으로 간주되는 한 평신도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도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의 위기와 그로 인한 이혼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대형화된 교회 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돌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모든 위기 가정들을 목회자들이 돌보기에는 단순히 역부족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성은 공동체성대로 약화되고, 위기 가정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정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 한국교회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목회 구조를 가지고 평신도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접근법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목회자 중심의 목회 구조를 벗어나서 결혼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평신도 부부들(back-from-the brink couples)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교회내의 결혼위기 부부들을 목회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 2장에서는 한인교회에서의 부부 위기의 심각성을 살피고 왜 평신도 가정사역이 필요하며, 또 현재 어떠한 모양으로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평신도 사역과 치유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치유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 구조적인 면에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현재 북미주의 교회에서 결혼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평신도 부부들(back-from-the brink couples)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내의 결혼위기 부부들을 돕게 하는 4가지 프로그램(The Third Option; Marriage Ministry; Marriage Savers; Caring Couples)과 한국교회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Tres Dias 프로그램을 가정사역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6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치유공동체로서 그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상황에 맞는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7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에서의 평신도 가정사역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예방적 가정사역에 있지 않고 이미 결혼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적 돌봄에 그 초점이 있다.

제 3 절 논문의 의의와 한계점

최근 한국교회 내에 평신도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실제로 실시하기에는 아직 자료와 성공사례가 너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 논문은 몇 가지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미국교회에서 현재 평신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교회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The Third Option이나 Marriage Ministry와 같은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는 전혀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한인 이민교회에서도 활발하게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는 Tres Dias 프로그램을 평신도 가정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국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이 제안하는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 자체가 좀더 많은 보완을 요한다는 점이다. 둘째,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제시되었을 뿐 목회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검증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분히 실험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본 논문은 한인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은 한국교회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 2 장

결혼위기와 평신도 가정사역의 필요성

결혼위기 가정에 대해 그 동안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목회적 돌봄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이 교회내의 위기 가정들을 성공적으로 돌보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새로운 형태의 가정사역이 요청된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결혼위기 문제의 현실을 살피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가정사역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현재 한국교회를 비롯한 미주 한인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사역의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사회의 결혼위기

교회 안에서의 가정사역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의 위기의 양상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또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하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의 부부 위기의 현실을 좀더 진지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1. 가정의 위기

현대사회의 가정의 위기는 이미 수많은 저자들이 경고를 했던 사실이다. 레지나 와이먼(Regina Weiman)은 현대 가정과 교회(The Modern Family and the Church)라는 책에서 “가정은 지금 길고도 위험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⁶⁾고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좀더 최근에 나단 액커맨(Nathan Ackerman)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가정 요법 분야의 선구자다. 내 입장에서 볼 때 현대의 가정과 결혼의 모습은 너무나 암담해 보인다.”⁷⁾ 베티 요르버그(Betty Yorburg)는 “미국은 컴퓨터화 되고 있는 사회인 도시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형태로서의 가정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⁸⁾ 에드워드 쇼터(Edward Shorter) 역시 “핵 가정은 흔들리고 있다.”⁹⁾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가정 위기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제 가정 위기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가정의 형태가 존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염려할 만큼 가정 자체의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혼으로 대변되는 가정의 위기는 한국사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혼이 우리 나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은 IMF 한파가 닥치면서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1988년 11월 통계청이 97년의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발표에 의하면 하루 평균 1천 26쌍이 결혼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하루 평균 255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이혼 건수(9만 3천건)로 볼 때 이는 90년도의 4만 5천 건에 비해 거의 배로 증가한 것이고, 96년에 비해서는 16.9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2만여 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⁰⁾ 이는 36퍼센트 정도의 이혼율을 보이는 것으로 3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혼하는 셈이 된다.

<표 2-1> 이혼건수 변화 추이¹¹⁾

(단위: 천건)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이혼건수	11.6	16.5	23.7	38.8	45.7	68.3	91.2	116.7	118.0	120.0

6) Regina Weiman, The Modern Family and the Church (New York: Harper, 1937), 18. Charles M. Sell, 가정사역, 21에서 재인용.

7) Nathan Ackerman, Marriage: For and Against (New York: Hart, 1972), 12. Sell, 가정사역, 22에서 재인용.

8) Betty Yorburg, Changing Famil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130. Sell, 가정사역, 22에서 재인용.

9) Edward Shorter,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1975), 150. Sell, 가정사역, 22에서 재인용.

10) 인구통계청, “2000년 혼인,이혼 통계결과(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11) 통계청, “2000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에 기재된 <표 12>를 따온 것임.

이러한 통계의 결과는 실제로 상담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혼문제로 상담실을 두드리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혼을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상담에 임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혼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서 서론에서 한인 이민사회에서 이혼문제로 상담을 해 오는 내담자 중 그리스도인의 비율의 80퍼센트나 된다는 가나 한인 새가족 상담소의 비공식적인 통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관계의 위기가 닥칠 때 이혼을 매우 실제적인 가능성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사회에서 보수적이고 중생의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이혼자의 27퍼센트) 비그리스도인들보다(이혼자의 24퍼센트) 더 쉽게 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어느 국가나 사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결혼위기를 겪으면서 실제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을 한 경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¹²⁾

2. 위기의 원인 진단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이토록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되었는가?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모양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현대사회의 가정의 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현대성 그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사회는 많은 가치관의 변화들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구화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대가족은 경제활동을 위해 핵가족으로 대체가 되었고, 공동체성이 약화가 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 체계가 무너지고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면서,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을 강요하는 남성들로 인해 결혼위기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가정이 맡고 있던 자녀의 사회화와 복지에 대한 책임이 많은 부분 국가와 사회로 이양되면서 가정은 부부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무너지면 더 이상 존속하기 힘

12) 참고, 노용찬, "사례로 본 교회 안의 이혼," 목회와 신학, 2000년 5월호, 73.

들게 되었다.¹³⁾ 그 결과 부부의 감정적인 만족이 끝이 나면 결혼생활은 쉽게 위기를 맞게 되는 실정이 된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경시 주의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는 시집살이를 하게 된다. “병어리 3년,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내는 무엇보다 며느리로서 남편 가정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며느리 된 자는 감정이나 이성을 가진 인간이나 또는 주체의식을 가진 자주적 인간으로 성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¹⁴⁾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에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시부모나 남편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아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예를 들면 시집살이의 불합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정에 돌아온 딸에게 친정부모는 “여자는 출가외인이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니 꿈에도 다시 친정에 돌아올 생각을 말라.”고 나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회에는 시집살이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혼을 택하지도 못하고 부부 갈등을 역기능적으로 처리하는 여성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¹⁵⁾

그러나 최근의 통계 조사 결과들은 여성들의 이와 같은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는 건수와 황혼이혼 건수의 증가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00년판 사업연감에 따르면 1999년에 제기된 이혼소송 중 아내가 원고인 경우가 64.2퍼센트 정도로 이는 10년 전(43퍼센트)에 비해 21.2퍼센트 정도 높아진 것이라고 한다.¹⁶⁾ 한국의 여성들이 이제 이혼에 대해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60세 이상의 황혼이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999년 한해 동안 전국 각 법원에서 재판으로 처리된 60세 이상의 황혼이혼의 건수는 102건으로

13) Brian G. Tobin, “Family: Concept and History,” in Carl L. Bankston III, ed., Encyclopedia of Family Life (Pasadena, Calif./Hackensack, New Jersey: Salem, Inc., 1999), 2:503-504.

14)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1983), 36.

15) 송성자, “한국 가족문제와 가족치료,” 가족치료총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편 (서울: 동인, 1999), 591.

16) 박영숙, “한국여성 지위 향상되고 있는가,” 한국일보, 2001년 5월 7일자, A9면. 1999년에는 남자가 피고인 경우가 61.5퍼센트였다. 한국의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라. Online: <http://www.scourt.go.kr/cgi-bin/nboard/>.

98년의 85건보다 20퍼센트 증가했다고 한다. 자녀를 위해 부부갈등을 묻어두고 지내왔던 많은 여성들이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세대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 사이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전체 이혼자의 13.4퍼센트에서 26.3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아래 <표 2-2>를 참조하라).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녀 문제가 60세 이상의 옛 세대에게 그러했듯이 가능한 이혼을 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해 동안 이혼한 부부들 가운데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경우가 전체의 70.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 동거기간별 이혼¹⁷⁾

(단위 : 천건, %)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15~19년	4.4	5.1	6.4	7.6	9.0	11.1	13.7	18.2	18.5	18.5
20년 이상	2.2	2.6	3.1	3.8	4.5	5.7	7.0	10.8	12.0	13.0
구 성 비										
15~19년	9.0	9.6	10.7	11.6	13.2	13.8	15.1	15.6	15.7	15.4
20년 이상	4.4	4.8	5.3	5.9	6.5	7.1	7.6	9.3	10.2	10.9

정리하자면, 한국사회는 서구화와 근대화의 물결가운데 가부장적인 전통 이데올로기들이 무너지고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여성들도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많은 남성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움으로 인해 결혼위기가 보다 심화되게 되었다. 더욱이 근대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개인화는 공동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라고 할 가정은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고, 가정의 파탄은 결국 사회와 교회의 공동체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회나 교회 공히 공동체성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성우위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기는 했지만 가정의 파탄을 막는 데는 주효했다면 전통적인 가정 질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할 지도 모른다. 사실 남성 위주로 이혼이 행해졌던 '칠거지악' 시대에도 삼불거(三不去)라 하

17) 통계청, "2000년 혼인,이혼 통계결과"의 <표 16>에서 따온 것임.

여 남편의 부모상을 지킨 처, 조강지처, 의지할 곳이 없는 처를 버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¹⁸⁾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대가족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혼에 대한 요구들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권위로 그냥 억눌러버릴 것인가?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질병의 원인을 분명히 진단하고 그 원인은 치료하지 않은 채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이혼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한국교회의 평신도 가정사역의 현황

1. 평신도 가정사역의 필요성

위에서 분석한 가정의 위기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는 그 동안 그다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 이혼에 대해 말한다 해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원론적인 차원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흑백논리적인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즉 어떤 사람은 조금만 부부간에 갈등을 보여도 쉽게 이혼하라고 권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끝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이혼의 절대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론적인 처방은 위기 가정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부부갈등의 근원을 해결해나가는 목회적 상담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다.

래리 크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장로들보다는 상담자의 치료실에서 더 큰 도움을 얻어왔다고 갈파한다.¹⁹⁾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원론적인 처방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새 이혼은 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이혼자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이혼자들은 내적 고민과 사회적 편견과 냉대를 견뎌야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이상 결혼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의 문제를 무관심하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워드 클라인벨은 그의 책 현대목회상담이란 책에서 현대 교회들의 가정에 대

18) 백태승, "이혼,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일보, 2000년 10월 24일자.

19)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227.

한 무관심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공적일 때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한다.²⁰⁾ 클라인벨은 인간의 깊은 욕구에 대해 응답하는 것, 곧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저주를 받으면서도 기도하게 하고, 의미를 찾기에 목말라하고, 참으로 의미 깊은 관계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서 교회의 존재의 타당성을 찾는다.²¹⁾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는 부부 위기를 겪는 교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고 이들을 상담을 통해 목회적으로 돌보는 데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²²⁾

사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위기 가정들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은 대형화된 교회에서 이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을 목회자의 몫으로만 생각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을 돌보고 도움 보다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평신도들을 통한 가정사역은 효과적이면서도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존 스토틀의 지적은 매우 유익하다.

평신도가 호응적이고 능동적이며 건설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른 이유는 신학적 원리에 입각한 실용주의나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다.²³⁾

교회가 평신도들을 목회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은, 특별히 위기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상담사역에 활용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생명은 '상호관계성'에 있다.²⁴⁾ 그리고 교회가 *ecclesia domestica*(집에 있는 교회/가정같은 교회)라고 불리우듯이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가정사역(*family-life ministry*)은 단순한 교회의 한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가정사역은 단순히 교회 조직 속의 한 부속물이 아니다. 선교와 같이 그것은 교회 생활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20) Howard J. Clinebell, Jr., 현대목회상담(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16.

21) Clinebell, 현대목회상담, 16.

22) 노용찬, "사례로 본 교회 안의 이혼," 목회와 신학, 2000년 3월호, 73.

23) John Stott, The Epistles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5), 11.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35에서 재인용.

24) Leslie and Winifred Brown, The Christian Family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9), 7.

가정이 새롭게 되려면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²⁵⁾ 교회는 가정 생활에 대한 훈련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가정과 같은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훈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과업 중심의 기관이 되어 버렸다. 특히 복음주의가 지배적인 교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극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교회가 가정의 위기 문제에 한몫을 담당했다는 비난을 듣게 된 것도 사실이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다보니 그 결과 부부나 가족관계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²⁶⁾ 행사지향적인 교회는 가족 관계 중심이 아니라 기구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개인은 직장이나 학교에서보다 교회에서 가정 생활 훈련을 받는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²⁷⁾

교회가 가정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논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다. 엘리자벳 오코놀(Elizabeth O'Connor)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가정과 가장 가까운 공동체일 것이다. 그리고 저 가정에서의 지을 수 없었던 상처들과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 새로운 ‘믿음의 가정’에서 다시 밝혀진다.”²⁸⁾ 또 조지 웨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정에서 형제들은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한다. 그와 같이 필수적인 가족 관계는 선교 회중[교회]에게도 해당된다.”²⁹⁾

가정이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 안에 질서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어찌면 그 사실은 감독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아보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바울의 감독에 대한 구비 조건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딤후 3:4-5). 사도 바울은 그의 언급 속에서 여러 번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고 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25) Charles M. Sell, 가정사역(Family Ministry), 양은순, 송현복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102.

26) Charles M. Sell, 가정사역, 103.

27) Ibid., 103.

28) Elizabeth O'Connor, Journey Inward, Journey Outward (New York: Harper, 1968), 182. Charles M. Sell, 가정사역, 104에서 재인용.

29) Webber, Congregation in Mission, 123. Charles M. Sell, 가정사역, 104에서 재인용.

가정 안에서의 사랑은 질서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교는 에베소서 5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에베소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음과 같이 부드럽고 이기적이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25-26절).

위의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가정적인 교회의 성격에 관하여 두 가지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확대가정으로서의 교회는 교인들 상호간의 질서와 협조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이 된다고 해서 조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정은 그 자체가 관리가 필요한 조직의 면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분명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요청한다. 단체적이고 피상적인 사랑의 표현과 책임이 신약성경 속에 나타난 가정 교회의 친밀한 표현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가정 생활의 모든 친밀하고 역동적인 면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곧 사랑하고 돌보아 주고 격려하고 꾸짖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직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정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³⁰⁾ 평신도 가정사역은 이와 같은 교회의 가족공동체로서의 체질이 잘 갖추어질 때 충분히 효과를 발할 수 있다.

평신도 가정사역은 평신도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확대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지체의 아픔과 고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이런 상호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사역이다. 이러한 사역은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지체간의 상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신도 가정사역은 가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자, 동시에 교회 자체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가정과 교회 모두를 세우는 상호사역이다.

2. 평신도 가정사역의 현황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얼마나 이 평신도 가정사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들이 교회 안에 상담실을 두고서 교인들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

30) Charles M. Sell, 가정사역, 107-109.

고 있다. 특별히 몇몇 교회들은 전문적인 평신도 상담사들을 두어 상담을 하게 한다 (예, 사랑의교회). 그러나 평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사역에 동참하는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와 같은 기피증은 사실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가정사역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상담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가정사역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주 한인교회 역시 한국교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일례로 나성 영락교회의 경우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평신도 상담훈련 교실도 개설하고 있으며, 전화상담과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과 부부생활에 대한 세미나들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을 당한 가정이나 알코올 중독가족 모임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³¹⁾ 그러나 결혼위기 부부들을 돕기 위해 평신도 그룹을 활용하는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교회들의 예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상담 사역에 혹은 가정사역에 힘쓰는 교회들조차도 평신도 자원을 결혼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에 활용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아직은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평신도 가정사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미미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평신도 가정사역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별히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 자체의 위기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교회는 분명 위기 가정을 돌보는 일에 보다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한다. 목회자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평신도 가정사역은 바로 이러한 현실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중요한 것은 목회적 돌봄의 영역에 있어 평신도들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목회적 돌봄의 영역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는 사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한국교회에서 평신도 가정사역을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철학과 교회의 구조적인 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31) 박희민, 박장수, 나성영락교회 가정목회비전 (Los Angeles: 나성영락교회, 2000).

제 3 장

평신도사역과 치유공동체의 신학적 근거

존 오트버그(John Ortberg)는 길버트 빌제키안(Gilbert Bilezikian)의 책 공동체 101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대답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³²⁾ 이 질문에 대해 오트버그 자신은 공동체라고 답한다. 요한 웨슬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지렵니까?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아니면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혼자서 하나님을 섬긴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³³⁾라고 말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열심은 단순히 개인에게 향해 있다기보다는 공동체 안의 개인들에게 향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³⁴⁾ 로드 윌슨(Rod Wilson)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 가운데 개인의 내적 역동을 묘사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연합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공동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지적한다.³⁵⁾

이런 참된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일은 성경적인 용어로 ‘사역’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능력의 사역”에로 부름을 받았다.³⁶⁾ 그러나 오늘날 ‘사역’이라는 말이 목회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전문용어처럼 인식됨으로 인해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서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배제되게 되었다.³⁷⁾ 그러

32)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1(Community 101) (서울: 두란노, 1999), 7.

33) Howard A. Synder, The Radical Wesley and Patterns for Church Renewal (Downers Grove: IVP, 1980), 148, R.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The Equipping Pastor),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175에서 재인용.

34)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220.

35) Rod Wilson, Counseling and Community (Waco: Word, 1995), 71.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221에서 재인용.

36) Richard J. Foster, 돈, 섹스, 권력(Money, Sex & Power) (서울: 두란노, 1985), 239.

37)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1, 89.

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사역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본 장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동체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사역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공동체와 평신도의 정의

1. 공동체의 정의

‘공동체(community)’란 간단히 정의내리자면, “지리적 접근성이나 사회적 단일성을 지닌 사람들이 동일성의 문화나 정신을 추구해 나가는 공동의 사회집단”이라고 할 것이다.³⁸⁾ 좀더 광의적인,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정의로 바꾸어 말한다면, 공동체란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한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모임”으로 말할 수 있다.³⁹⁾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 공동체(ekklesia)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B.C. 5세기 경의 고대 희랍의 유리피데스(Euripides: 그리스 시인)나 헤로도토스(Herodotus: 그리스 역사가)로부터 유래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랍의 도시국가(City state)에서 도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일들이나 판결에 필요한 일들을 포함한 일상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적인 형태로 모인 이 모임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속하는 일 이요, 이를 통하여 그들은 자유로이 자신들의 사회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⁴⁰⁾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청지기적 삶의 모임’을 그 특성으로 한다.⁴¹⁾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공동체’란 신앙의 공통된 관점을 체험하는 인격적 관계로서 나누는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공동체(community)’란 개

38)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학연구회 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183.

39)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59.

40)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VP, 1993), 123.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60에서 재인용.

41) 여기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선교적 자세를 지니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란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스노글(Icenogle)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창조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의 두 가지 극단으로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 사역(목적 또는 과업)이 없는 관계는 소그룹에 대한 온전한 그림이 못되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참된 반영이 아니다”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Downers Grove: IVP, 1994], 24.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61, 재인용).

개인이 가치관과 삶의 실제에 있어서 “함께 일치”(com+ unity)를 향해 나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겠다.⁴²⁾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covenant)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그분의 백성을 끌어들이시고 세상을 위하여 온 세계로 내보내신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토대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으며, 또한 그 언약을 이끌어 가는 원칙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다.⁴³⁾

2. 평신도의 정의

‘평신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라오스(laos)’라는 말과 그 의미가 같다. 이 용어는 단순히 ‘백성’,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속적인 의미로는 헬라 시대의 전 시민을 가리켰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처음에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다가(행 4:10) 나중에는 예수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 즉 말세 교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행 15:14).

그러나 이 용어가 신약에서 어떤 한 그룹의 특정인들을 가리켜 사용된 용례는 한 번도 없다. 항상 포괄적으로 백성 전부를 다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다.⁴⁴⁾ 그러므로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면 그 본래의 의미가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혹은 성도, 혹은 제자, 혹은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 교회를 가리킨다.

평신도라는 말에는 교역자와 그 나머지 신자들을 갈라놓는 의미가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 존 스토틀가 지적한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개성이다.⁴⁵⁾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구별지을 만한

42)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9-11,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61, 재인용.

43) Icenogle, ibid., 664,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62에서 재인용.

44) John Stott, One People (Downers Grove: IVP, 1971), 2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39에서 재인용.

4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8.

다른 어떠한 조건이나 근거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직이라는 것 자체도 다른 신자들과 신분상 구별되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⁴⁶⁾

제 2 절 구약에서의 공동체와 평신도 사역

1. 하나님의 속성과 공동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선언하시고 그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창 2:18, 20).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ezer: suitable helper)’로 주신 이유는 남자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돕는 배필’이라 번역된 ‘에제르(ezer)’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구원자(rescuer)’라는 고차원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도 늘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출 18:4; 시 33:20; 70:5; 117:9-11 등). 따라서 여자의 창조는 남자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진 편리수단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창 2:24).

사실 하나됨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창조사역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공동으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로 여겨질 수 있다. 만물의 존재의 특성과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약 1:17).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말한다. 그리고 1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능력에 의해 모든 것이 명령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집행자요, 창조의 수행자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참고, 요 1:3).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 세 구절만 보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며, 영원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것과 그 공동체로부터 다른 모든 공동체들이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⁷⁾

46)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39-40.

47) Bilezikian, 공동체 101, 18-21.

따라서 인간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됨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이었고, 또한 사람에게 주신 존재방식이었던 것이다.⁴⁸⁾

2. 태초의 평신도 사역

구약성경에서 보면 '사역'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주신 청지기적 책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을 때도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지만(창 2:15), 여자를 만드신 후에는 함께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창 1:28). 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도 주셨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명령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의 성격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둘째로 공동체의 구성원들(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에서 함께 종이 된다. 그들은 모두 다 '사역자(minister)'다. 사역자라는 이 말은 '종'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셋째로, 공동체의 사역에는 그 구성원들 전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공동의 임무에 공헌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면제되거나 제외되지 않는다.⁴⁹⁾

3. 타락과 하나됨의 상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었다. 남자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창 2:7) 이제는 흙의 노예가 되었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는데(창 2:22) 이제는 남편의 종이 되었다(창 3:16). 창조 공동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계 구조(hierarchy)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위계 구조하에서 사람들이 공동체 임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배하는 권위를 지닌 몇몇 개인들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되었다.

48) Bilezikian, 공동체 101, 17.

49) Ibid., 19.

타락은 또한 원래 협력해서 일하도록 계획되었던 일들에 대해 남녀간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 짓는 결과를 초래했다. 타락 후에 통치권 명령은 남자에게 전적으로 속하게 되었고, 남자는 생계를 위해 고통과 분투를 겪게되었다(창 3:17-19).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주어졌다. 또한 하나님의 일대일의 혼인 관계가 사람들이 만든 일부다처제로 변형되어 남자는 여러 아내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타락 후에 나타난 남자의 지배권은 가부장적인 체계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의 청지기 직분은 분리와 배타성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⁵⁰⁾

하나님의 최상의 창조 목적인 한 몸 되는 공동체 원리는 창세기 2장 이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들이 연합을 위해 바벨탑을 쌓으려 시도했지만, 결국 그 일은 인간사회를 의사소통이 없는 공동체로 전락시키고 말았다(창 11:1-8).⁵¹⁾

4.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동체 건설이라는 영원한 계획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옛 공동체의 잔해로부터 새 공동체를 창출하셨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창 12:1-3).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상의 고향, 즉 타락하고 부패한 옛 공동체로부터 나와 새 공동체 건설의 기초를 놓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길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이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셨다.⁵²⁾

5. 제사장, 선지자, 사사들, 왕에 의한 사역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리라는 약속을 하셨다(출 19:5-6). 그러나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를 못하고 몇몇 ‘지배자’ 유형의 개인들이 누리는

50) Bilezikian, 공동체 101, 39.

51) Ibid., 33-38.

52) Ibid. 39.

특권이 되고 말았다. 일반인들을 대신하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해져서 공동체의 삶을 버리고 혼란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그 결과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당시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judges)'을 보내셨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남녀들로서,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끝내 얻게 되었다. 다시 왕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세워진 것이 되었고, 그 백성들에게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삼상 8:7, 10:19, 12:19).⁵³⁾

제 3 절 신약에서의 공동체와 평신도 사역

1. 예수에 의한 공동체의 회복

아브라함을 통한 새 공동체의 창조의 약속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은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갈 4:4).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먼저 십자가의 세로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나타낸다. 가로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웃과의 공동체적 연합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엡 2:13). 예수님은 공동체의 계명으로 사랑의 이중 명령을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다(마 22:37-39).

십자가의 구조를 통해 상징되는 화해의 두 국면과 두 큰 계명의 상관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여준다.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시는 일이다.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는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찾을

53) Bilezikian, 공동체 101, 94-96.

수 있다.⁵⁴⁾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 가정 생활의 회복은 효과적인 경계들을 갖춘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은 현재 가정을 침범하고 가정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가족 공동체의 친밀감 속에서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깥 세상의 모든 요구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 재건되어야 한다.⁵⁵⁾

2. 새로운 제사장 제도로서의 평신도 사역

이와 같은 십자가 사건과 교회라는 새 공동체의 창조를 통해 구약의 세 가지 제도, 곧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먼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었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그는 이미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다(요 1:19-22).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의 백성들이다(고전 3:16-17; 고후 6:16; 엡 2:21-22).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집이고,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한다(벧전 2:5). 그들은 두 가지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예배이고(히 13:15), 다른 하나는 선한 행위이다(16절). 선지자 직분은 구약 시대와 같이 특권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되었다(엡 4:12).⁵⁶⁾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존재의 핵심으로, 우리 모든 삶으로 예배해야 할 분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야 한다. 제사장은 부서지고 주린 심령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끌어당겨야 한다.⁵⁷⁾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와 같은 존재이다. 제사장의 한쪽 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다른 쪽 손은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형제들의 필요를 보면서

54) Ibid., 40-42.

55) Jack O. Balswick, 크리스찬의 가정, 425.

56) Bilezikian, 공동체 101, 98.

57)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197.

“오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당신의 두려움을,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⁵⁸⁾ 그러므로 온 교회는 신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섬기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⁵⁹⁾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신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전통에 의하여 ‘목사’ 또는 ‘사역자’라는 말이 교회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소수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의 사명에 이보다 더 큰 걸림돌이 된 제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레그 옥덴(Greg Ogden)은 그의 탁월한 저서 The New Reformation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분열 차원의 교회(Split-level Churches)”를 낳게 되었다고 지적한다.⁶⁰⁾ 하나됨의 공동체는 차별적 구조의 사역으로 대체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됨보다는 세상적 계층화를 드러낸다.⁶¹⁾

3. 하나됨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나 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요 17:11, 20-23).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아무런 위협이나 궁핍, 핍박을 당하지 않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보전(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 1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 17:21). 특별히 예수님은 17장 20절에서 이 기도를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됨의 공동체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다.⁶²⁾

58) Ralph W. Neighbour Jr, “셀 교회 정신이 중요합니다,” 목회와 신학, 2001년 3월호, 37 재인용.

59) Hans Kung, The Church (New York: Image Books, 1967), 487.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11 재인용.

60) Greg Ogden, The New Reform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2). Bilezikian, 공동체 101, 99 재인용.

61) Bilezikian, 공동체 101, 99.

62) Ibid., 44-45.

4. 성령 강림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요 17:11, 21-23)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새롭고 강한 능력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니”(행 4:32). 바울 역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골 3:15).

리델보스(Ridderbos)는 특별히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과 지체의 각 부분”(고전 12:27)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다른 어떤 은유보다 교회의 집합적 일치, 곧 공동체성에 근거하고 있다 말한다.⁶³⁾ 또 데이빗 왓슨(D. Watson)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해석한다.⁶⁴⁾ 그리고 도널드 거쓰리(D. Guthrie)는 말하기를 “이 몸의 비유는 바울의 교회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격위에 대한 그의 교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갈파한다.⁶⁵⁾

성령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교회의 하나됨의 공동체성은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상호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그룹 공동체다. 이와 같은 성격의 소그룹 안에서는 함께 동그렇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며 하나 됨의 기쁨과 유익을 나눌 수 있다.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곳은 예외 없이 소그룹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핍박을 당하며 고통받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다.⁶⁶⁾

5. 선지자적 평신도 사역

구약 공동체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63) Herman Ridderbos, 바울신학(Paul), 박영희 역 (서울: 지혜문화사, 1985), 425.

64) Davi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3), 426.

65) Donald Guthrie, 신약신학(New Testament Theology), 정태원 김근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844.

66) Bilezikian, 공동체 101, 69-74.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 선지자 사역이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된다. 베드로는 오순절 메시지에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나의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행 2:17-18)라고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고전 14:3) 결과를 낳는 모든 말씀 선포 사역을 포괄한다.

교회의 존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고전 12:28),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자는 더 존경할 자로 여겨졌다(딤후 5:17). 그 말씀 사역은 열두 사도의 핵심그룹으로부터 시작된 후 스테반(행 6:8-11)과 빌립(8:4-6), 빌립의 세 딸들(21:9), 다소의 사울(9:22) 및 그의 유대인과 이방인 동료들과 그외 무명의 수많은 제자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웃과 세상에 전파했다(행 13:49).⁶⁷⁾ 그들은 이 선지자 사역을 통해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예상치 못한 마음의 빈틈을 통해 영혼의 문제를 스며들어가는 방법으로 진실에 대해 선포했다. 그들은 죄와 파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의와 회복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다.⁶⁸⁾

6. 왕권과 평신도 사역

왕권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사역 또한 새 공동체의 탄생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제 교회라는 새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마 2:2,6, 눅 2:11).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왕’아니 ‘수퍼 사역자’와 같은 위계 질서는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교훈하시듯 그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청지기 직분은 섬기는 것이지 경쟁함으로써 통치권이나 권위를 획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마 20:20-28).⁶⁹⁾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7. 은사와 하나됨을 기반으로 하는 평신도 사역

67) Bilezikian, 공동체 101, 100-101.

68)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190.

69) Bilezikian, 공동체 101, 102-103.

바울은 은사와 사역의 다양성을 말하는 동시에(“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롬 12:4하) 하나됨을 말한다(“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롬 12:4상). 그에게 있어 은사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하나됨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상호필수적인 관계에 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6-8, 고전 12장). 이와 같이 ‘하나됨’과 ‘은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역’이 바울이 주장한 사역이며, 초대교회의 주된 사역이었다.⁷⁰⁾

Bilezikian은 그의 책 공동체 101에서 하나됨과 은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역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받은 은사를 따라 모두가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이러한 사역 유형이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옹호되므로 ‘표준적(normative)’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⁷¹⁾라고 잘 지적했다.

지금까지 살핀 신구약 성경에서의 공동체성과 평신도 사역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공동체는 인간의 고안물이나 사회적 회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시에 자기의 존재 속성을 따라 계획하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다양한 은사와 사역을 통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은사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통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속성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성(하나됨)과 평신도 사역(은사의 다양성)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70) Bilezikian, 공동체 101, 116-117.

71) Ibid., 125.

제 4 장

치유공동체로서의 한국교회와 평신도 사역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치유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특별히 결혼위기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신도 자원을 목회 사역에 동참시켜 위기 가정들이 새롭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치유공동체와 평신도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 내의 구조적인 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 1 절 치유공동체로서의 교회

1. 치유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

2001년 3월 19일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린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95퍼센트의 미국인이 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장로교는 60년대 이후 계속 신도수가 줄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가는 대신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종교적 메시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종교는 원래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며 이 같은 현상이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교회에 필수적인 공동체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 10명중 7명의 미국인이 교회 없이도 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서로의 믿음을 복돋워 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아플 때, 친지를 잃었을 때 이웃을 찾아 따뜻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동료 교인들이다. 인터넷에 신도들을 뺏기고 있는 데는 기존 교회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⁷²⁾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치료의 장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 목사가 총만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한 문제

72) 한국일보, 2001년 3월 20일자 재인용.

에 직면했을 때는 그들의 역할이 대체로 축구 경기장의 주전자 소년같이 지지자로서의 역할로 물러난다. 쿼터백이 목이 마르면 주전자 소년을 부른다. 그러나 팔이 부러졌다면 정형외과 의사를 부른다. 자연발생적인 공동체(주전자 소년)는 격려를 한다. 그러나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목사에게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상담센터로 달려간다. 결국 치료자나 정신과 의사, 회복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목회상담자와 같은 훈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⁷³⁾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자주 영혼을 치유하는 본연의 역할을 공동체 밖의 전문가에 넘겨버린다. 그러나 필자는, 래리 크랩이 확신하는 것처럼, 교회가 상담센터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치유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그룹 멤버들이 지지하고, 도전하고, 지도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를 돕는 치료 집단을 통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런 집단이 해를 끼칠 수도 있다. 특히 그것이 서로가 솔직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하도록 도전하거나, 세워 주기보다는 비판하고 당황케 하는 통제되지 않은 만남이 될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민감한 지도자에 의해 인도된다면, 집단 모임(group sessions)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 경험이 될 수 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한 몸의 공동체성을 고백하고 이와 같은 서로를 세우는 역할을 사명으로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이 일을 돕고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의 다른 어떤 그룹보다 그와 같은 치유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⁷⁴⁾

오늘날 사람들이 상담자에게 들고 가는 대부분의 문제들 뒤에는 관계단절이 놓여 있다. 정서장애가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심리학적 자아가 아니다. 하나님과 또한 인간끼리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으나 어리석게도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관계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힘은 공동체 바깥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치료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기초하여 상호관계성 가운데서 상호 격려하고 도전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복음의 힘은 사람들이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⁷⁵⁾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치유공

73)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168.

74) Garry Colins, 크리스천 카운슬링, 피현희, 이혜란 역 (서울: 두란노, 1980), 23.

동체서로의 사역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역이라고 할 것이다.⁷⁶⁾

2. 교회 내의 치유의 힘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개인적 관심의 차원에서 서로를 지지해 주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⁷⁷⁾고 관찰했다. 그저 개인적인 관심으로만 그쳐서는 교회가 치유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노력이 개인적인 관심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 스캇 펙(Scott Peck)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몸, 한 공동체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⁷⁸⁾고 질타한 바 있다.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됨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바로 이와같은 친밀한 상호관계성에 입각한 공동체 속에서만이 교회 안에서 소외 받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보다 교회 바깥의 상담자의 치료실에서 더 큰 도움을 받았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름 받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장로들의 모임’이란 상아탑에서 예산을 확인하거나 직원들을 고용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훑어보면서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동안 기독교 상담자들은 교회 밖의 사무실에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을 심어주는 등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해 왔던 것이다.

이들 기독교 상담자들의 공헌을 평가절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여전히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전문적인 상담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75)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206-208.

76) Garry Colins, 크리스천 카운슬링, 654.

77) Henri J. M. Nouwen, Clowning in Rome: Reflections on Solitude Celibacy, Prayer, and Contemplation (Garden City, New York: Image, 1979), 9.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222 재인용.

78) Scott Peck, The Different Drum: Community Making and Peace (New York: Touchstone, 1988), 300.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222 재인용.

성령의 놀라운 화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교회에 있고, 또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야말로 교회 안의 상처받고, 소외받고, 가정의 위기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치유하는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래리 크랩은 그의 책 상담과 치유공동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치료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영혼과 연합하는 불가능한 도전을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데, 그 도전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직업적 장면에서 극소화되고, 비구조화된 관계에서 극대화된다. 복음의 힘은 사람들이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크게 나타난다.⁷⁹⁾

복음은 사람들을 재결합시킨다. 이기심으로 인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기심에 대한 용서를 경험케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사귄을 갖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함께 모은다. 복음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람들과 사람들을 재결합시킨다.

이와 같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그 공동체 역시 연합하는 힘을 갖는다. 이 힘은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힘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접촉하는 힘이다. 복음의 토대 위에 선 치유공동체에는 이와 같은 힘이 넘친다.⁸⁰⁾

이와 같은 치유공동체는 결코 훈련된 전문가들에게 성도들을 내맡기고는 뒷짐을 지고 있지 않는다. 치유공동체는 신실한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이미 두신 것을 부요케 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같은 열심을 갖도록 격려한다. 죄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두신 그분의 형상대로 그들이 무엇이 될 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갈 4:19).

79) Larry Crabb, 상담과 치유공동체, 208.

80) Ibid., 232-239.

제 2 절 어떻게 한국교회를 치유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품어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라기보다는 “편집적인 환경(paranoid environment)”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회 내의 이혼부부의 증가는 확대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이들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돕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⁸¹⁾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치유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사역과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치유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1. 목회철학의 준비

먼저 목회자 편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사실 목회자의 준비가 가장 우선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교회를 평신도들이 유기적으로 생동감 넘치게 사역하는 치유공동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관과 목회철학의 갱신이다.

목회철학은 사실상 교회관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목회자의 목회철학은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앞서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라 자랑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를 목회자들만의 전유물로 이해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의 가슴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와같은 목회자 중심주의는 사실 종교개혁의 전통과도 모순을 일으킨다. 만인제사장의 원리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래머가 잘 지적했듯이, 종교개혁 이후 지난 400여 년 동안 목회자들은 말로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만인 제사장직을 공인하고 고백하면서, 안으로는 자기만이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처신해 왔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은 목회의 전권을 행사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평신도들은 점점 더 수동적인 존재로, 그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81) 이관직, “이혼의 증상들과 목회적 치료책,” 목회와 신학, 2000년 5월호, 91.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분리 현상은 만인제사장 원리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다양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과 배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만인제사장의 원리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사역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목사는 분명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행 6:2-4)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엡 4:11-12)이다. 또 목사는 지역 교회를 책임질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히 13:1) 역시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사역들은,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 열린마음을 가지면, 수도 없이 많다.⁸²⁾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사역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고 고독감을 느낀다. 혼자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이내 병적인 피로감으로 만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목회자도 한둘이 아니다. 특별히 교회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질수록 목회자가 탈진에 이르거나 적당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커진다. 이런 현상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한때 모세가 백성의 소송을 자기 혼자 다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짐을 나눌수 있는 지도자들을 발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많은 교역자들이 평신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짐을 나누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⁸³⁾

그러나 옥한흠 목사가 잘 지적했듯이, 평신도는 현대교회가 가장 희망을 두고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최선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⁸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책임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목회사역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목회철학의 갱신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특별히 연약하고 상처 입은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친밀한 관계를 통해 상담하고 치유하는 목회적 돌봄 역시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 가정사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이와 같은 목회철학의 전환이

82)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179.

83) Ibid., 178.

8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6.

선행되어야 한다.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 할 때 타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적인 교회관과 목회철학 및 비전을 효과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성도들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평신도 가정사역의 당위성을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명령조의 언행은 삼가야 할 것이다. 평신도 가정사역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려면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과 그 사역에 대한 확신이 모든 성도들과 공유되어야 한다.⁸⁵⁾ 그러할 때 성도들도 똑같은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유공동체를 이루고 위기가정을 돌보고, 기타 제반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 평신도 훈련

목회철학을 평신도 목회사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는 목회자는 평신도들에게 주체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배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 되었다는 일종의 안도감 때문에, 혹은 목회 사역은 목회자들이나 할 일이라고 단정짓는 평신도 근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미온적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려는 경향이 많다. 전도나 선교, 가정사역 등은 일부 열심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이와 같은 객체의식을 벗어버리고 교회의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⁸⁶⁾

평신도들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세상에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 제사를 통해 다른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해 주는 그와 같은 사명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⁸⁷⁾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직

85)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233.

86)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73.

87) Hans Küng, The Church, 387.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11, 재인용.

에는 하나됨의 공동체성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신도들을 각양의 사역에 합당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합치한다. 칼빈은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무지와 나태가 빛을 수 있는 인간 속성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이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치는 배려를 해야 한다.⁸⁸⁾

바울 서신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위해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은 교회에 세 가지를 주셨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역자를 주셨고(엡 4:11), 가르치는 내용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고(딤후 3:16-17), 또 가르치는 방법으로 탁월한 모델을 주셨다(골 1:28-29). 그러므로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양들 주위에 울타리를 싸고 아무 것도 못하게 가두어 놓는 '보호 목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의 변화를 통해 그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까지 계속 끌어 주는 적극적인 목회가 필수적이다. 최선의 목회는 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 스스로 재생산하게 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보호 목회에만 머무르면 성도들을 주변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 성도로 만들고 말 것이다.⁸⁹⁾ 그러므로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회 사역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평신도들이 자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사역의 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최영기 목사의 경우 목사들만이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역들을 평신도들에게 과감히 맡긴다.⁹⁰⁾

88)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45-41.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12, 재인용.

89)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75.

90)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80.

서울침례교회의 한 평신도는 이렇게 간증한다.

얼마 전에 목원 한 분이 회갑을 맞았다. 연로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리라 생각했는데, 평신도인 저에게 맡기셨다. 처음에는

지금도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목장(가정교회)들에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그 비전을 사역 속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의 단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인 것이다.⁹¹⁾ 성도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간직한 가운데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즉, '내'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지체는 자신만의 은사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 떨어지지 않고 관계성을 유지하며 사역한다. 그럴 때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결과적으로 온 교회가 동질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⁹²⁾ 이와 같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보다 온전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⁹³⁾

3. 치유공동체의 형성

특별히 평신도 가정사역과 관련하여 결혼위기로부터 벗어난 경험이 있는 부부들을 찾아내고 훈련시켜 이들을 하나의 치유공동체로 묶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치유공동체라는 용어는 자칫 이 공동체의 목표가 치유에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좀더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치유공동체라 할 때 이 말은 이와 같은 부부들이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 단계를 제시한다는 말이 아니다. 은사 운동의 치유나 내적 치유와 같은 그런 유의 치유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치유공동체는 소 지지 집단을 가리킨다. 치유공동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 상호관계성에 근거한 지지를 통해 결혼위기에 처한 부부의 공동체성 혹은 하나됨을 진작시키는 그런 기능을 강조하는 데 적합하다.

평신도들 중심의 치유공동체가 결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은 이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브라질 동양선교교회 상담자로 있는 도은미 사모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

당황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요, 하나님께서 부축한 것은 보충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전하고 나니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과감하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최 목사님께 감사를 드렸다.

91) Paul Stevens and Phi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231.

92) Ibid., 230.

93) 조태환, 평신도를 목회의 파트너로 삼아라 (서울: 나침반, 1999), 7.

된 열 쌍의 부부들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 직접적인 이유로 자기 부부의 주변에서 이혼을 절대로 반대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속상해 하며,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쓰러지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만약 그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장려하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혼을 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생활의 갈등을 겪으며 이혼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부부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동행해 줄 공동체이다. 목회자나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 이전에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부부의 경우 순간 순간을 버텨낼 힘과 용기가 없다. 능동적인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것은 결혼생활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혼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교회 안에서 이혼대상자들이 파악되면 목회자는 즉시로 그들의 회복을 도울 두 세 쌍의 부부를 그 가정에게 붙여줄 필요가 있다. 회복의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지체 버리거나 또는 그 가정에 주어진 책임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그 가정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겨 이혼대상자 부부를 돕는 일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너무 많은 가정을 공동체로 묶어 주면 책임감이 분산되어 도움의 손길이 희박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두세 가정으로 도우미 가정을 정하고, 이혼대상자 부부를 그와 같은 공동체 속에 묶어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공동체로 묶어진 다른 부부들은 하루에 한번씩 이혼대상자 부부를 둘러보거나 전화로 교제하며, 그 마음의 번뇌와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십분 이해해 주며 그 힘든 마음을 읽어 준다. 때로는 저녁식사도 같이 하고 그들의 자녀들도 돌보아 주며, 공동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그럼으로써 그들 부부가 겪는 어려운 과정들에 공동체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혼대상자 부부가 밝히는 문제의 내용은 그 공동체와 목회자 말고는 아무에게도 누설하면 안 된다. 특별히 그들의 이혼 가능성이 교회 안에 소문으로 퍼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영기 목사가 섬기는 휴스톤 서울 침례교회의 경우 가정교회(목장)가 이와 같은 치유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그는 여자들만 모이는 어느 가정교회에 참석하던 독실한 불교 신자 한 명이 이 모임에서 부부관계와 갈등에 대해 성도

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다시금 화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그 부인이 다시 화해하고 결혼위기를 극복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얼마 후 그분은 이혼을 결심했던 남편과 장거리 여행을 같이 다녀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뛰쳐나왔던 집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다. 부부가 헤어지면 안 된다고 아무리 타일렀어도 합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굽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듣고 부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봄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흉내내게 된 예이다.⁹⁴⁾

이 예는 치유공동체가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은 부부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정들이 오늘날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들을 위한 좀더 전문화되고, 훈련받은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평신도 자원들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94)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54.

제 5 장

결혼위기 부부를 돕기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들

미국 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결혼위기 부부를 돕기 위한 가정사역을 시행하는 예가 많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겪고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온 가정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내의 문제 있는 가정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하는 평신도 중심의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가지 프로그램들(The Third Option; Marriage Ministry; Marriage Savers; Caring Couples Network)과 한국교회에서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는 Tres Dias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절 The Third Option⁹⁵⁾

1. The Third Option의 배경과 특징

The Third Option은 상처받은 가정을 찾아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패트리시아 엔네스(Patricia Ennis)⁹⁶⁾가 위기에 처한, 그리고 실제로 이혼을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만난 이혼자들 중에 믿음이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95) 아래의 내용은 Patricia Ennis, The Third Option: Support Group for Hurting Marriages Manual (Syracuse, N.Y.: Roman Catholic Diocese of Syracuse, The Third Option, 1989)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용문들은 필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96) 패트리시아(Patricia)는 Syracuse University에서 사회사업학(Social Work) 석사를 하고 30년 이상 가정사역을 해오고 있다.

충격을 받았다. 문제는 그들이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목회자도 찾고, 상담가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상담가들은 참을 수 없는 결혼생활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인 이혼을 택하라고 권했던 것이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때부터 그녀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고, The Third Option은 그녀가 찾은 해답이었다.

그녀가 발견한 제 3의 대안은 상처 입은 부부들이 과거에 아픈 상처를 가졌으나 잘 이겨낸 부부들(back-from-the brink couple)에게서 경험담을 듣고 배우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실 상처 입은 부부들은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기 원한다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패트리시아는 수많은 위기 극복 부부들과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하여 The Third Option에 대한 제안서를 만들었고, The Third Option은 그 후 4년만에 Roman Catholic Diocese of Syracuse의 가정생활연구소(Family Life Office)의 한 프로젝트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The Third Option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역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1. 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결혼생활에 희망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삶의 보람을 준다.
2. 이들에게 결혼생활의 역동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하며,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이들의 화해과정에 도움이 될 관계 기술을 가르친다.
3. 이들을 전문적인 상담자들에게로 연결해주거나 이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자료들을 제공한다.⁹⁷⁾

The Third Option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전문적으로 고안 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상담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위의 세 번째 목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실 The Third Option의 핵심은 “지원 그룹(support group)”이라고 부르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지 전문적인 상담가가 아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위기를 겪고 극복한 이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97) Patricia Ennis, The Third Option, Chapter 1-1.

다. 그러나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상담가의 상담이나 기타 다른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프로그램의 내용⁹⁸⁾

가. 오리엔테이션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The Third Option에서 준비한 간단한 브로셔⁹⁹⁾를 통해서나 아니면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접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오리엔테이션은 프로그램에 새롭게 참여한 부부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으며, 이 때 먼저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된(back-from-the-brink) 부부 한 쌍과 연결시켜 준다.¹⁰⁰⁾ 참가자는 이 부부로부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오리엔테이션에서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이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며, 상처받은 부부가 그와 같은 상처를 잘 극복한 부부들과 만나 성공사례를 나눔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기술과 방법들을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의 시간의 흐름은 아래 <표 5-1>과 같다.

<표 5-1>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의 개요	
첫째 시간:	<u>시작기도</u> 그룹 지원/이전 모임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위기 극복 부부의 “지나온 경험”을 나눈다(50분간 진행하고 10분간 휴식)
둘째 시간:	<u>프리젠테이션</u> / 14개의 주제에 대한 미니 워킹을 진행한다

98) 프로그램의 내용과 흐름은 The Third Option 매뉴얼의 “시나리오”(Chapter 1) 부분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시나리오” 부분을 따른다.

99) 브로셔는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세 번 접는 모양으로 제작된다. 흔히 이 브로셔에는 주소, 전화번호, 약도(모임 장소나 호실 포함)를 명기한다.

100) 참고로 팀은 문제를 극복한 부부 두 쌍으로 이루어진다. 한 쌍의 부부가 오리엔테이션이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다른 한 쌍은 자신들의 경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세한 것은 The Third Option, Chapter 2-19이하를 보라.

(각각의 주제들은 순환식으로 제시되며, 25-30분간 할애한다)

나눔/ 팀 커플이 해당주제에 대해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질문/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을 읽는다
큐티/ 2-3분간 묵상하는 시간 가진다
침묵기도/ 침묵기도로 마무리한다

나. 첫 번째 시간(101)

(1) 시작 기도(Opening Prayer)

The Third Option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의 신성함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한다. 시작 기도는 간단하게 그 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상처난 가정들을 잘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2) 그룹 토론(Group Discussion)

첫 시간은 프로그램의 지원(support)이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 참가한 부부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나눔의 시간이다. 그룹 토론은 늘 이전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주로 이전 모임에서 배웠던 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겼나를 중점적으로 나누게 된다.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나 어떤 때는 지난 시간에 자기가 세웠던 목표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가능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되,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거나 강요하는 식의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첫 시간은 학교 공부시간과 같이 지적을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개인적인 일들을 나누는(sharing) 시간이다.

101) 첫째 시간에 대한 내용은 The Third Option, Chapter 1-10, 1-11과 Chapter 5를 보라.

나. 두 번째 시간¹⁰²⁾

(1)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미니 워샵

둘째 시간은 미니 워샵과 함께 시작된다. 미니 워샵의 가장 큰 목표는 첫 시간에서 가졌던 개인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얻은 지원을 보다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이다. 워샵은 참여하고 분석하고 연습함으로써 좀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미니 워샵에서 다룰 주제는 모두 14가지이다.¹⁰³⁾ 매 주제를 다룰때마다 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부부가 다 함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의 균형은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상대방이 올라가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가) 존중하는 분위기 만들기

존중은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 주제다. 참석자들은 존중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들의 균형 잡히지 못한 존중에 대한 태도를 반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 워샵을 통해 참가자들은 배우자나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히 이 워샵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부의 기본적인 인권선언(Married Couples Bill of Rights)을 다루게 된다.

① 공간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결혼이 전적인 함께함(total togetherness)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부는 각자가 공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② 다룰 권리: 부부는 서로 다룰 권리가 있다. 배우자를 다른 어떤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③ 의견 불일치의 권리 : 부부는 독특한 존재들이므로 각자 자신의 의견과 기호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는 배우자와 의견이 불일치할 권리를 포함한다.

④ 표현할 권리: 부부는 각자의 감정과 기호와 의견을 표현하고 배우자에게 경청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부부는 각자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102) 둘째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The Third Option, Chapter 1-11이하와 Chapter 4를 보라.

103) 아래는 The Third Option 매뉴얼의 Part II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를 가지고 있다.

⑥ 신뢰받을 권리: 신뢰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부부는 서로에게 신뢰받을 권리가 있다.

⑦ 진실을 들을 권리: 배우자에게서 불편한 감정에 대해 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

⑧ 의논 대상이 될 권리: 부부는 서로에게 의사결정의 파트너가 될 권리가 있다.

⑨ 불완전할 권리: 부부는 불완전할 권리가 있다.

⑩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 다른 모든 권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나) 책임과 비난 게임

이 워크숍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불균형, 곧 책임의 지나친 결핍과 지나친 과잉 책임으로 인한 극단적인 불균형을 발견하고 참가자가 적절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책임을 상징하는 피터팬(성장하기를 싫어하는 작은 소년)과 과잉 책임을 상징하는 아틀라스(Atlas, 지구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신)를 예로 제시한다. 그리고 두 가지 스킴을 통해서도 책임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발견하게 한다.

(다) 기대 이해하기

이 워크숍은 결혼생활 속에서 부부간의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를 보여주며, 도움부부들로 하여금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해야하며 어떻게 실질적으로 서로 대해야 하며, 그 기대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그 기대에 대한 책임은 둘이 똑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대들이 이루어지려면 절대적인 상호동의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라) 힘겨루기의 재정의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그들의 결혼생활 속에서 힘 겨루기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정하게 하며, 힘 겨루기 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이길 것이냐의 문제들을 힘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게임을 통해 참가자는 자신이 “늘 이기는 사람” 유형인지 아니면 “늘 지는 사람” 유형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테니스 복식 게임처럼 부부가 “같은 팀 멤버로서” 힘의 균형을 가질 때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마) 절제에 관한 이슈들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성숙함의 중요성과 스스로 억제하는 법과 배우자

의 자율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주제 역시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통제 불능 상태와 지나친 통제 혹은 융통성 없는 획일적 통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자율적인 통제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통제 불가능한 배우자는 그 스스로가 통제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늘 통제하려고 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을 풀어주고 스스로가 통제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 듣기

이 워킹숍은 결혼한 부부들이 남의 말을 청취하는데 있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서로 듣는 것을 멈추는가를 토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남의 말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도움부부들로 하여금 참가자들에게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거나 피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말을 가로채는 습관들을 극복하는 연습을 참가자들이 짝을 지어 실제로 실습해 보게 한다.

(사) 성격 차이

이 워킹숍은 모든 사람의 성격의 특성은 능동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으로 나누어져있다는 점을 알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혼 전에는 배우자의 성격에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줄 다른 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결혼 후에는 단지 부정적인 면만 보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참가자들이 배우자의 성격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서로 상반되는 특성 위에서 “그들의 배우자와의 타협점을 찾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 어린시절의 문제와 감정 보따리

이 워킹숍은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어린시절의 상처가 남겨놓은 “감정의 보따리 (emotional baggage)”와 “이루지 못한 꿈”(unfinished business)에 대해 생각하고 결혼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어린시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린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바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루지 못한 일들로 상처가 되어 남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루기

이 워킹숍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그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를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배울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분노를 쌓아놓는 유형(stuffer)인지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분출하는 유형(inflictor)인지 반성하게 한다. 이 두 극단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자가 시한폭탄과 같다면 후자는 원자폭탄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핵에너지처럼 결혼관계에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차)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기

이 워크숍은 배우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네 가지 경우의 좋지 못한 대화를 실습해 보고, 세 가지 검증된 건강한 대화법, 곧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상호 존중하는 대화법을 실습해 보게 한다. 특히 후자를 실습할 때는 “1인칭 화법(I statements)”을 사용하도록 하도록 격려한다.

(카)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히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기본 규칙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고, 갈등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발견하고 실습하게 한다.

(타) 감정과 상처의 사이클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상처의 사이클(hurt cycle)이 무엇이며, 이 사이클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알게 하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처 사이클이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세 가지 스킷 드라마를 사용한다. 이 상처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해 자신이 취했던 양갈음의 태도를 정당방위라고 정당화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파) 용서와 치유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용서가 단순한 한가지 행동(single act)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process)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것임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서는 배우자 각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점을 강조한다. 참가자들에게 용서의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와 깨어진 그릇을 접착제로 그 조각들을 붙이고 다시금 페인트를 잘 칠함으로써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한다.

(하) 신뢰 회복하기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고, 또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지구 방법을 모색해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주제 역시 균형이 중요한데, 너무 쉽게 신뢰하여 속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신뢰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의심으로 바라는 극단적인 태도가 부부간의 신뢰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균형잡힌 신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나눔(Sharing)

이제 한 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미니 워크숍)이 끝나면 새로운 팀 커플이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분노를 잘 다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예를 들어 그들은 배우자에게 자주 분노와 빈정댐을 표현했고 이로 인해서 3개월씩이나 살았던 경험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다. 참가자들은 것처럼 어려운 지경에까지 갔던 팀 커플이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 용서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는지를 듣게 된다.

이 개인적인 나눔의 시간은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기 극복 성공담을 나누는 일은 상처받은 부부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희망을 주는 데 절대적이다. 이 나눔은 열린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이 알려지고 과거가 알려져서 상처받기도 쉬운 그런 일이다. 이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구성과, 의미심장한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나눔이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다른 부부들로 하여금 부분 부분이 자기의 경우와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좋은 지원 그룹은 충고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가미 없이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절대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마시오.”라는 식의 충고를 주는 식의 화법은 피해야 한다. 가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알코올, 마약, 도박, 별거, 이혼 등의 문제)에게는 권면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때라도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은 자신들이 전문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

고 충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3) 질문

각각의 워크시트(worksheet)에는 그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요약과 아울러 아래 부분에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결한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질문들은 특별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만들어졌다. 첫 번째 부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내가 행동하는 것들 중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밤에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나는 화가 날 때 꺾꺾 참는 사람(stuffer)인가, 아니면 화를 마구 분출하는 사람(inflictor)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양극단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중간적 태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참조, <부록 2>).

두 번째 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자신이 꼭 변해야 하는가? 만일 배우자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만일 그가 전혀 대화하지 않는 배우자면 나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용기를 주며, 도움을 줄 것인가?'

(4) 큐티

큐티 시간은 힘이 넘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들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배우자와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다. 시간은 3분 이상 넘지 않는 것이 좋다.

(5) 침묵기도

이 시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데 감사하고, 자신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침묵기도와 함께 둘째 시간의 공식적인 순서를 마무리하게 된다.

(6) 광고

때때로 광고할 일이 생긴다. 새 멤버들이 들어오거나 모임 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 시간을 통해 공지하면 된다. 모든 순서가 끝이 나면 팀 커플이나 참석자들 상호

간에 수고했다는 격려를 하도록한다. 헤어질 때도 다음에 꼭 만나기를 다짐해 두는 것이 좋다.

다. 비공식적인 시간의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비공식적인 시간들을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후 10분간과 중간 휴식 시간 10-15분 동안 많은 비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어떤 부부들은 의도적으로 일찍 와서 팀 커플들과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 또 어떤 부부들은 휴식 시간에 그날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어떤 부부들은 프로그램이 다 끝난 이후에도 그날의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대화하기를 원한다. 사실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강의나 충고를 듣기보다는 비슷한 처지에서 갈등이나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부부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듣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이 비공식적인 휴식 시간에도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작은 도서실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관련 서적들이나 팜플렛, 핸드북 등을 비치해 놓고 비공식적인 시간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날 모임의 주제에 관한 책들을 대여해 가서 집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라. 훈련¹⁰⁴⁾

이 프로그램은 결혼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부부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 코디네이터¹⁰⁵⁾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시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디네이터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코디네이터는 스텝들 중에서 선발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 그룹에서 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는 적절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력이 있으며, 자기 동기부여가 잘된 사람이어야 한다. 탁월한 리더십과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임을 이끌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

104) 선발과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The Third Option, Chapter 2, 6를 보라.

105) The Third Option, Chapter 2-1, 2-2를 보라.

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결혼생활에 매우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위기 극복 부부들을 찾아서 훈련시키고 이들을 팀으로 조직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적인 상담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서관을 구비하고, 미니 워샵을 인도하거나 이 워샵을 인도할 사람을 훈련시키고 기타 프로그램에 필요한 행정적인 일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2)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 선발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low profile). 그러므로 이들을 찾아내기가 쉽기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회 내의 성도들이나 목회자, 지역사회에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의 존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을 찾아내면 이제 이들이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에서 팀 커플로 일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The Third Option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¹⁰⁶⁾

먼저는 과거에 결혼생활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보다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로 진심으로 신뢰하게 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꼭 별거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오랜 냉각기를 겪었다거나 오랫동안 성생활을 중단했다거나 간음 때문에 어려웠다거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부부라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자신들이 극복하게 되었는 지를 잘 아는 부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쪽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화목하게 된 부부라면 적절치 못하다.

둘째는,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결혼을 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두 번째 결혼한 부부들을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로 삼을 경우 참석자들로 하여금 '아 이혼했다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두 번째 결혼인 부부들을 도우려할 때는 적절할 수도 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여야 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화해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부부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06) The Third Option, Chapter 2-8이하를 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므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믿음생활을 하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부부들이어야 하며,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들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이들을 선발할 때 위의 자격조건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전문 상담가를 대동해서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질문들을 통해 이들 부부들의 선발 가능성을 타진하면 된다.

- ①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 ② 자신들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었는 지를 잘 알고 있는가?
- ③ 자신들이 화목하게 회복된 진실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④ 그들이 돕겠다는 의지가 진실해 보이며, 부부가 확실하게 이에 동의하는가?
- ⑤ 부부 두 사람 모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가?
- ⑥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가?
- ⑦ 부부가 하나님이 자신들이 화해하게 해 주셨다고 믿는가?
- ⑧ 발표기술이나 능력이 있는가? (사건별로, 시간별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 ⑨ 서로 판단하거나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 ⑩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가?
- ⑪ 부부가 힘을 공유하고 좋은 대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¹⁰⁷⁾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들 부부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화해를 이룬지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난 사람들이어야 한다.

(3)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 훈련 108)

이제 선발한 부부들을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팀 커플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훈련과정은 예비과정과 8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진 본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예비과정

예비과정은 본 훈련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The Third Option 오리엔테이션과 팀 모임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자원하여 하고

107) The Third Option, Chapter 2-11.

108) Ibid., Chapter 6를 보라.

자 하는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한다.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준비하되 5-8분 정도의 분량으로 한다. 유인물을 통해 어떻게 “화해의 주 요소들”을 선별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말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나) 본 과정

본 과정은 약 2시간 분량의 8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세션은 화해와 오리엔테이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각각의 부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 다음 일곱 가지 세션을 통해서 매 세션마다 두 가지 미니 워킹샷들(총 14가지 워킹샷)을 실제로 실습하게 된다. 본 과정의 자세한 훈련스케줄에 대해서는 <부록>을 보라.

(다) 인도자/프리젠테이션 훈련¹⁰⁹⁾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 훈련과 아울러 또 한가지 중요한 훈련이 있다. 그것은 프리젠테이션을 인도할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훈련자는 미니 워킹샷의 각 주제들에 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코디네이터가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인도자/프리젠테이션(facilitator/presenter)은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가 하는것이 좋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자 후보자의 가장 주된 자격요건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The Third Option, Chapter 5-2 참조). 이 훈련과정 역시 8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도자 지침과 프리젠테이션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 세션들에서는 각각의 미니 워킹샷을 어떻게 제시하고 인도할 것인지를 실습하게 된다.

3. 평가

가. 장점

가장 큰 장점은 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평신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미국 사회의 이혼율이 50퍼센트를 넘어서고, 더 심각하게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이혼율이 사회의 이혼율을 추월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교회

109) The Third Option, Chapter 6-7이하를 보라.

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들을 도울 것인가?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은 그 현실적인 대안(“제 3의 대안”)으로 교회 안에 풍부한 평신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설문 조사에 응답한 5명의 목회자¹¹⁰⁾ 모두가 이에 대해 공감했다.

둘째로, 동질그룹 안에서 보다 진한 공감을 교환함으로써 수치감을 줄이고 위로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접근 역시 설득력이 있다. 결혼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이 상담을 할 때는 사실은 화해와 회복의 희망을 기대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별거나 이혼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을 가정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는 The Third Option의 기본 원칙은 매우 효과적이고도 혁신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현재 결혼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셋째로, 해결책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 그 자신들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은 잘 한 일이다.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대로 자기 변화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때 결혼위기 문제는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부 갈등의 대부분이 상대 배우자를 바꾸려 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대처라고 보여진다.

넷째로, 항상 전문가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서로를 돕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양육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로, 가능하면 배우자 양자 모두 참석하도록 권면하지만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참석하기를 원할 경우 허용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한쪽 배우자가 변하게 되면 다른 배우자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각 교회 상황이나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110) 필자는 본 연구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The Third Option과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에 대해 5명의 목회자들에게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동주 목사(영락교회 출석); 김송식 목사(South Baptist Convention); 방성일 목사(엘센트로 한인교회); 이계안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박혜성(동부연합감리교회). 위의 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는 이들의 의견이 일부 수렴되었음을 밝힌다. 자세한 것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세션을 14가지 주제로 제한하고 이에 대해 원리와 실제(위기극복 경험담)을 곁하여 접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14가지 주제로 한정함으로써 목표 기간을 알고 그 내용을 예상하게 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준다는 점과 매 번 주제가 한정되게 다뤄짐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 역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단점

그러나 자체적으로 혹은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 볼 때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단점들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들의 결혼생활의 위기가 교회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다. 소그룹 토론 역시 자기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한국 사람의 정서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밀 보장에 대한 장치와 아울러 프로그램 진행상의 기밀성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회 중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부가 교회에 안 다닌다거나 어느 한쪽만 교회에 다니는 경우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국교회의 경우 소위 짝 가정들이 무척 많다. 특별히 부부사이가 원만치 못한 짝가정 부부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함께 참석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부부를 효과적으로 교회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여겨진다.

셋째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원 그룹으로서의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의 역할과 상담과의 차이점, 자원봉사자로서의 책임 소재의 한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 결론을 손쉽게 내림으로서 더 좋은 방법을 찾지 않게 되거나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가족의 배경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인 이민교회의 경우 한인 1세대, 1.5세대, 2세대 모두가 문화가 다르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이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한 가지 패턴으로 다루기는 힘들 것이다.

다섯째는, 14가지 주제가 성취감이나 의욕고취의 장점은 있지만 부부 사이의 문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도움부부들 팀에서 세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문

제들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두기는 하지만 부부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사례 연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여섯째는, 평신도 가운데 코디네이터를 세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초기 단계의 경우 목회자가 코디네이터의 역할까지 겸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제 2 절 Marriage Ministry¹¹¹⁾

1. Marriage Ministry의 배경과 특징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미 아픔을 겪은 부부들을 가정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시켜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돕게 한다는 점에서(a couple to couple ministry), 그리고 교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The Third Option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은 맥기니스(McGinnis) 목사가 1987년에 St. David Episcopal Church 내에 있는 결혼위기를 겪고 성공적으로 극복한 부부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맥기니스 목사는 상담가나 전문가, 혹은 심지어 목회자이 자신의 결혼 문제 상담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줄곧 이 질문에 매달렸다. ‘하나님은 Alcoholics Anonymou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그들 스스로가 발견하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어떻게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맥기니스 목사가 AA의 성공에서 착안한 것은 위기를 당한 부부들 스스로가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경험했고 성공적으로 극복한 부부들을 모으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들 7쌍의 부부와 함께 결혼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맥기니스 목사는 이들 부부들에게 일 주일에 한번씩 결혼위기 부부를 만나 자신들이 어떻게 문제

111) 아래의 내용은 R. H. McGinnis, Marriage Ministry: Crossing Out Divorce. A Pastor's Manual과 Marriage Ministry: Crossing Out Divorce. Training Outline, “Marriage Ministry. A Couple to Couple Ministry: Crossing Out Divorce”이라는 팜플렛을 토대로 한 것이다.

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경험담을 들려주고 6주마다 결혼위기 부부의 관계 회복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리고 결혼위기를 극복한 이들 7쌍의 부부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부부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혼위기를 만난 부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17가지 원리(17 Action Statements)를 정립하게 되었다. AA의 10가지 원리에 비견하는 보편적인 해결책을 얻게 된 것이다. 이 17가지 원리는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룬다.¹¹²⁾

2. 프로그램의 내용

가. 17가지 원리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은 크게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을 발굴하여 도움 부부(helping couples)로 준비시키는 훈련과 이들이 결혼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17가지 원리는 훈련과 사역의 중심이 된다.

사실 이 원리들은 7쌍의 결혼위기 부부들이 다시 정상적인 부부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원리들은 크게 여섯 가지 요소로 분류될 수 있는데, 희망과 하나님께 헌신, 배우자에게 헌신, 자기 변화, 신뢰감, 과정에 대한 인식 등이 그것이다. 17가지 원리는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17가지 원리(Action Statements)¹¹³⁾

희망

1. 다른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발견했다.

하나님께 헌신

2. 나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다.

3. 나는 그리스도와 배우자와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헌신했다(아가페의 사랑).

4.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112) Marriage Ministry 브로셔에 의하면 Retrouvaille(주말 수련회 프로그램) 역시 17가지 원리 중 14가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브로셔는 17가지 원리가 Retrouvaille 사역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연구되고 정리된 것이라고 밝힌다.

113) Marriage Ministry, A Pastor's Manual, 5.

5.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6.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행동과 생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배우자에 대한 헌신

7. 우리/나는 함께 살기로 헌신했다.

8. 우리/나는 배우자와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9. 나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기 변화

10. 나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11. 나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 자신이 사랑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내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변화할 수 있는 지를 배우게 되었다.

12. 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나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변화했다.

13.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였다.

신뢰

14.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 배우자를 돌보는 데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하게 되었다.

15. 나는 사랑 안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참되고, 정직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16. 나는 하나님과 배우자를 나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다).

과정에 대한 헌신

17.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을 함께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 찾기

개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먼저 교인들 중 부부관계가 안 좋았었는

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한 부부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가 예배시간을 이용하여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결혼위기의 심각성과 이 문제를 도울 도움 부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알코올 중독자들 자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유익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망가진 결혼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 역시 주셨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을 다시 세우시는데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비전을 준다. 그리고 모임 후에 곧바로 목회자와 이들 부부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다. 훈련 서약을 위한 만남¹¹⁴⁾

훈련 서약을 위한 만남(sign-up meeting)에서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신은 당신의 결혼생활이 파멸 위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위기를 당한 부부들을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도우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8주 정도의 훈련 과정 동안 17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그 자신들이 어떻게 결혼생활의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솔직하게 나누고 자신들이 겪었던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부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해 배우게 한다.

모든 훈련과정이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헌신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일 배우자 중 어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사역에 헌신하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훈련에 동참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부부들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충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소개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도움 부부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 일정을 잡는다.

라. 훈련¹¹⁵⁾

훈련은 주 단위로 8-10주 동안 실시한다. 가장 먼저 할 것은 “17가지 원리들”을

114) Marriage Ministry. Training Outline, 3.

115) Marriage Ministry. A Pastor's Manual, 7-10; Marriage Ministry. Training Outline, 1-20.

읽고 목회자(훈련자)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훈련을 받는 부부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나눈다. 이것은 결혼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부부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할 지를 실제로 연습하는 기회가 된다. 어떤 부부의 경우는 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한 그룹에 훈련받는 부부가 네 쌍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각 그룹에는 리더 부부가 필요하다. 17가지 원리를 꼭 그 순서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훈련 과정을 다 마쳐야만 결혼위기를 겪는 부부들을 돕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경험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와 도움은 다른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돕는 데 매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련 과정을 마칠 때쯤에는 17가지 원리에 대해 모두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움 부부로 훈련받는 부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과 교제가 필요하다. 4주나 6주에 한번씩 만나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 훈련 세션은 주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¹¹⁶⁾

① 먼저 환영의 인사와 함께 훈련 과정에 대한 소개와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특별히 평신도 목회 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②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언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나 하는 질문)

③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세션 이후부터는 휴식 시간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리더 부부들의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④ 이 프로그램의 역사와 개요 및 사역에 대해 개괄한다.

⑤ 17가지 원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⑥ 다음 세션을 위한 과제물을 내준다.

⑦ 기도로 마무리한다.

두 번째 세션부터는 17가지 원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되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진

116) Marriage Ministry, Training Outline, 5-7.

행된다. 다만 첫 번째 세션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지난 세션에 대해 복습하는 순서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션은 특별히 그 이전 섹션과 다른 패턴을 띄게 되는데, 이는 Marriage Ministry 사역에 대한 헌신을 서약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떻게 이 사역에 헌신하는 부부들이 고통받는 부부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먼저 도움 부부들은 고통받는 부부를 만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도움을 줄 수가 있다.

- ① 기도한다.
- ② 서로에 대해 알고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진다.
- ③ 문제에 대해 경청한다.
- ④ 17가지 원리를 기초로 하여 당신이 혹은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비슷한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었는 지를 나눈다.
- ⑤ 무엇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 지를 나눈다.
- ⑥ 도움 부부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도움 부부들이 함께 모일 때 그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한다.¹¹⁷⁾

도움 부부 헌신자들에게 제시되는 가이드라인들¹¹⁸⁾ 중에 특별히 몇 가지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평신도 사역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교회와 목회자 혹은 코디네이터의 권위 아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교회 안의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해 사역할 때도 교회의 목회자나 코디네이터와 충분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둘째로, 상담의 과정을 따르되 전문 “상담가”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도움부부가 할 일은 판단하거나 충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부부들의 문제를 잘 듣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판단이나 결정은 전적으로 결혼 위기로 고통받는 부부들 자신이 내려야 하지 도움부부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도움 부부와 고통받는 부부의 만남은 부부 대 부부로 하든지, 아니면 남편들

117) *Marriage Ministry, Training Outline*, 13.

118) *Ibid.*, 13. 자세한 것은 뒤에 있는 <부록3>을 보라.

끼리 혹은 아내들끼리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만남은 보통 교회나 공공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좋다.

마. 문제 부부를 위한 사역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을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울 때 조심할 것이 있다.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비밀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부부들에게 문제 부부들의 전화 번호를 알려줘서 직접 연락을 취하고 서로 만날 약속을 하게 한다.

그러나 어떻게 결혼위기 부부들을 찾을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이다. 교회에서 광고나 게시판, 교회 신문을 통해 사역에 대해 알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동참하기를 호소하는 것이다. 혹은 성도 개인의 사업장에 이런 광고를 게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Marriage Ministry, Training Outline은 한 가지 특별한 광고 이벤트를 제안한다.¹¹⁹⁾ “희망의 저녁(An Evening of Hope)”이라는 이벤트인데, 교인들을 초청하여 17가지 원리(Action Statements)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 중 한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한두 쌍의 부부가 설명을 한다. 이 이벤트는 문제 부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3. 평가

가. 장점

첫째로, 이 프로그램 역시 전문적인 상담가가 아닌 순수한 평신도들이 결혼생활의 위기와 갈등을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부부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사역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론을 가르치지 않고 실제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사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론보다 경험(실제)이라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돋보인다.

둘째로, 이 프로그램은 목회자가 교회 안의 모든 목회 사역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통념을 바꾸게 한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보다 결혼위기를 겪는 평신도 부부들과 대화를 열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도움을 주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신

119) Marriage Ministry, Training Outline, 15.

도들은 이미 가진 장점들을 가지고 적절한 훈련만 받으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훈련기간은 사람에 따라 좀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목회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이들을 훈련하는 일에 투자해야 할 지도 모른다. 어떤 부부는 두 번의 모임만 필요했고, 또 어떤 부부는 30-40번의 모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훈련하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 이들 평신도 부부들을 통해 수많은 결혼위기를 겪는 부부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목회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역들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이 프로그램은 보다 덜 형식적이고, 실행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그 기간도 8주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회에서 시도해보기에 비교적 부담이 적어 보인다.

넷째로, 충분한 사전 진술이 선행되고, 거기서 배운 것을 충분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행동한 것을 명시화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변화된 행동에까지 이르는 “자아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점과 결혼위기 부부들끼리의 교제를 통해 “이웃과의 교제 및 이웃성숙 돕기”를 이룰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섯째로, The Third Option의 14가지 주제처럼 기본 핵심 원리를 17개로 제한하여 다룸으로써 가시적 목표의식을 고취하고, 성취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저녁”이라는 이벤트의 경우 익명의 숨겨진 결혼위기 부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도움부부들을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찾아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나. 단점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역시 그 자체로나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 볼 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17가지 원리가 부부생활에 매우 효과적인 지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원리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면서도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이 떨어지므로 계속적으로 이 원리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와 같은 사역에서는 평신도들이 피상적으로 대화하는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히 도움부부와 결혼위기 부부들 간에 마음을 열고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거나 도움부부의 전달 능력이 부족할 경우 대화가 피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비형식적인 만큼 흐름이 목회자가 계획하는 대로 흐르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흐름을 잡을 것인지, 그 타이밍을 잡을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지침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이 프로그램 역시 기밀성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노력이 요청된다. 때로는 이 기밀성의 실패로 인해 결혼위기를 부추기거나 심화시킴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성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평신도 가운데서 프로그램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Tres Dias¹²⁰⁾

1. Tres Dias의 배경과 특징¹²¹⁾

Tres Dias(트레스 디아스)는 3일 간 진행되는 초교파적 수양회적 성격을 띤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다 가까이, 보다 친밀하게 하고자 하는 운동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지도자적 자질과 사도적인 능력을 함양케 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40년대 후반 스페인에서 시작된 로마 카톨릭의 Cursillo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시민 전쟁과 2차 세계 대전은 스페인의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때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뜻 있는 신자들이 서로를 돕고자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Majorca 섬의 Juan

120) 필자는 2002년 1월에 L.A. 지역에서 시행되는 LA Rainbow Tres Dias Weekend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고, 아래 내용은 필자의 경험과 필자가 얻게 된 여러 가지 문서(디스켓) 자료 및 Tres Dias 홈페이지(<http://www.tresdias.org>)를 참조한 것이다.

121) Tres Dias 홈페이지에 소개된 The Tres Dias Leaders Manual(1993)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Hervas 주교와 Eduardo Bonin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안에서의 삶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서로가 나눔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고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착안하여 Cursillo de Cristiandad(기독교 단기 세미나)라는 이름의 주말 수련회 프로그램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은 1950년대 후반까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에만 행해지다가 1960년대 초기에 영어권에서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했던 개신교 신자들이 이와 같은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Dave McManigal과 Helmut Maier, Bob Essert 같은 사람들에 의해 1972년 로마 카톨릭의 Cursillo 운동에 기초한 초교파적인 Tres Dias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뉴잉글랜드, 뉴저지, 펜실바니아, 등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으며 1980년 7월 11일에는 미국 전역의 Tres Dias 운동들이 연합하여 “Tres Dias”라는 이름의 조직을 갖추고 전 세계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Tres Dias는 1980년대 이래 한국교회에 도입이 되어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주에는 Chicago와 LA에 지부가 있고, 한국에는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 지부가 있어 한국어로 Tres Dias 훈련이 제공되고 있다.¹²²⁾ 남가주의 경우 생명샘교회나 뽀엘교회, 은혜교회, 사랑의빛 선교교회, 어바인 침례교회, 나성영락교회, 샌디애고 갈보리장로교회 등 몇몇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Tres Dias의 본질적 가르침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Tres Dias를 경험한 사람들(Prescadores)이 경건 생활을 지속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하며, 사도적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res Dias는 이 운동의 일관성과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요소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Tres Dias는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Tres Dias의 궁

122) 늘새롬교회(김제연 목사)의 자료(<http://nserom.org/t.d/TD-1.htm>)에 의하면, 한국 내에서 시행되는 세 가지 주된 프레스 디아스가 있는데 레마선교회(이명범)에서 도입하여 운영했던 한국 프레스 디아스(나중에 서울 프레스 디아스로 됨)와 금호제일감리교회의 장광영목사가 도입하여 1989년에 시작한 골든 프레스 디아스(2001년 3월 현재 102기 탄생), 꾸르실료 한국협의회의 지원을 통해 시작된 유니온 프레스디아스(2001년 3월 현재 16기 탄생) 등이 있다.

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을 수용함으로써 Tres Dias 운동의 기본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

둘째로, Tres Dias는 초교파적인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망라할 수 있도록 각 교파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존중해 준다.

셋째로, Tres Dias는 기본적으로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이다. 목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장려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신도 운동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조점은 '로요(Rollo)'라는 강의의 비율을 평신도와 목회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넷째로, Tres Dias는 한 교파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교회의 대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정적 모임이나 소규모 예배의식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 프로그램의 내용

Tres Dias에 참가하는 사람은 '후보자'(Candidate)라고 불린다.¹²³⁾ 후보자는 '페스카도르'(Pescador)가 되기 위해 세 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Tres Dias Weekend 이전 단계와 Weekend 단계, 그리고 Weekend 이후(제 4일) 단계가 그것이다.

가. Tres Dias Weekend 이전 단계

이전 단계에서는 후보자의 선발과 Tres Dias Weekend를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후보자는 공인된 Tres Dias 공동체나 이와 유사한 공동체의 멤버의 추천을 받는 자로서 21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주로 받아들인 자로서 그리스도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열망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든 기독교 교파로부터 합당한 자로 인정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미 Tres Dias 공동체나 이와 유사한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은 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23) 그 외의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부록을 보라.

Tres Dias는 두 번 이상 경험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의 스폰서는 Tres Dias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에 후보자가 3단계 과정 모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 Tres Dias Weekend

(1) Tres Dias Weekend의 특징

Tres Dia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하도록 돕는 3일간의 크리스천 공동체 생활 운동이다. 개인적 체험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생시킬 수 있는 종류의 체험이 아니다. 그룹 다이나믹스를 통한 활동이지만 감성 훈련이나 단체요법의 일종은 아니다. 남자나 여자의 개인적인 기독교신앙에 대한 탐구심을 자극하는 신학적 가르침이기는 하나 교리에 대한 훈련이나 가르침은 아니다. 묵상의 자아성찰 기간일 수는 있으나 하나의 은둔 훈련이 아니다.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일 수는 있으나 회개의 경험은 아니다. 성령님과 만남이기는 하나, 은사 운동의 일종이 아니다.

프로그램은 남자와 여자가 별도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단 영적 지도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팀 멤버는 모든 기독교 교파를 망라하며 반드시 Tres Dias Weekend를 경험한 자라야 한다. Rector(프레스 디아스 팀 최고 지도자)는 평신도로서 지역 Secretariat(프레스 디아스 조정 위원회)의 지원아래 Weekend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주관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끝까지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첫째 날

Tres Dias Weekend 프로그램의 첫째 날은 저녁부터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 ① Rector의 소개: Rector란 Tres Dias 팀의 지도자를 말한다.
- ② 침묵의 시간: 침묵의 시간은 다음날 아침 예배시간까지 지속된다.

③ 영적 지도자에 의한 묵상(meditation): “너 자신을 알라”; “탕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④ 로요(Rollo): 성직자와 평신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로요를 듣게 된다: “이상”(평신도); “은혜”(성직자); “교회”(평신도); “성령”(성직자); “경건”(평신도).

토크(talk)는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가 된다. 성직자가 인도하는 묵상과 성직자의 로요, 평신도의 로요가 그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전체 평신도 로요의 수와 성직자 로요/묵상의 수가 같다는 것이다(각각 10). 그리고 평신도 토크와 성직자 토크는 교대로 제시되게 된다는 점이다. 첫째 날 저녁에 제시되는 묵상은 전체 Tres Dias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각 날의 첫 번째 토크는 목회자에 의한 묵상으로 이를 통해 그 날의 주제를 선포한다. 그리고 각 날의 마지막 토크는 평신도 로요로서 그 날의 메시지에 관해 삶 속에 실제 체험을 가진 로이스타에 의해 간증으로 제시가 된다. Tres Dias는 이와 같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협력 사역을 강조한다.

모든 묵상과 로요는 Tres Dias 고유의 흐름을 벗어나면 안 된다. 평신도 로요는 격식을 탈피한 간증 형식의 평이하고 일상적인 토크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날의 “The Fourth Day”를 제외한 각 로요에 대하여 테이블별로 토의 시간을 가진다. Weekend를 계획하고 테이블별 인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환경, 직분, 나이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그리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편성한다.

(3) 둘째 날

둘째 날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 묵상을 하고(성직자 진행) 다음과 같은 로요를 듣게 된다: “성경 공부”(평신도); “성례”(성직자); “크리스천의 행동”(평신도); “은혜의 방해 요인”(성직자); “크리스천 리더”(평신도). 첫째 날 부분에서 언급한 묵상과 로요에 대한 지침은 둘째 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별히 둘째 날 오후에는 테이블별 그룹기도 시간을 가진다.

(4) 셋째 날

셋째 날에는 페스카도르들(Pescadores)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성직자 진행)에 대해 묵상하고, 다음과 같은 로요를 듣게 된다: “크리스천의 환경”(평신도); “은혜 안의 생활”(성직자); “행동하는 크리스천 공동체”(평신도); “재회모임 그룹(Reunion

Groups)“(평신도): “제 4일(the Fourth Day)“(평신도). 그리고 사도수여식(Apostolic Hour)을 하고 간증으로 마무리한다. 테이블별 그룹기도는 셋째 날 아침에 한다.

다. Tres Dias Weekend 이후 단계(제 4일)

Weekend 이전 단계와 Weekend 단계는 후보자 각자의 제 4일(The 4th Day)을 위해 존재한다.

(1) Reunion Groups(재회 모임)

Tres Dias Weekend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새롭게 페스카도르(Pescador)가 된 사람들에게 “The Reunion of Friends” 그룹이라고 불리는 Group Reunion(그룹 재회모임)에 참여토록 권유한다. 그리고 지역 사무국은 Tres Dias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The Working Group Reunion”이라는 Group Reunion을 활용한다. 그리고 지역 사무국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Secuela 모임을 주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Secuela(세콰일라)는 “The Floating Group Reunion”으로 불리어지는 Group Reunion(그룹 재회 모임) 형태로 운영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Secuela에서는 4th Day에 대해 각자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Tres Dias 팀 멤버

Tres Dias Weekend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페스카도르가 된 사람들 가운데 Weekend 이후 3개월 정도 재회모임을 통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Tres Dias 팀 멤버가 된다. Rector(팀 최고 지도자)는 보통 이들에게 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요청한다. 그 역할로는 Auxiliary(팀 멤버와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사람), Table Leader(테이블 토크 인도자), Music Director(찬양인도자), Rollista(로요를 제시하는 사람), Spiritual Director(영적 지도자) 등이 있다. 그 어떤 역할을 맡든 간에 팀 멤버는 팀의 화합과 Tres Dias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섬기고, Tres Dias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공통의 임무를 가지게 된다.

팀 멤버의 사역 가운데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 Rollista(로요를 전달하는 사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res Dias Weekend에서는 15개의 로요(Rollo)가 제시

되는데 이 로요를 제시하는 사람을 Rollista(로이스타)라고 한다. Weekend 프로그램 기간 동안 5개의 로요는 성직자들이 감당하고, 10개의 로요는 평신도들이 감당하게 된다. 로요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방법은 정리된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 로요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와 간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별히 교리 부분을 위해서는 지침서에 제시된 관련 성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지침서에서 제시된 기본 윤곽을 이용하여 개인의 경험이나 예들을 첨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때 후보자들(Candidates)로 하여금 로이스타 자신이 직접 준비했으며,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개인적인 간증도 개요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로요는 Tres Dias 팀에서 먼저 제시하여 검토를 받게 된다. 이는 Tres Dias 동안 로이스타 자신이 할 역할에 대한 연습이자 재확인 기회이며, 다른 로이스타들이나 테이블 리더들에게 로요의 시간과 내용을 알고 자신들의 로요의 흐름과 내용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로요를 검토받은 후 변경하도록 권유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고 반드시 Rector(팀 최고지도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로요를 실제로 전달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자신 있게 전달하면 된다.

(나) Table Leader(테이블 토크 인도자)

테이블 리더는 각각의 테이블에서 후보자들과 함께 지내며 대화나 기도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페스카토르다. 그들 중의 일부는 로요를 전달하기도 한다. Tres Dias 팀에서 테이블 리더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임무들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팀의 통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테이블 리더들은 팀 모임 때 로요를 크리틱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Tres Dias 사역 기간 동안에는 자기 테이블에 배정된 후보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고, 제시된 로요를 각자의 테이블에서 토의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3. 평가

가. 장점

우선 먼저, Tres Dias는 평신도 중심으로 각자의 신앙과 삶을 나눔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핀 두 가지 프로그램과 유사

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도 경험해 보았지만, 평신도들의 삶의 간증들은 실제로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필자의 설문에 응답한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삶으로 변했다거나 나를 예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삶의 변화를 고백하였다.¹²⁴⁾

둘째로,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 역시 중요한 장점 중 하나다. 특별히 필자가 Tres Dias Weekend를 참석할 때 도움 팀으로 섬기는 페스카토르들이 추운 밤에도 바깥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이 그들의 삶의 간증과 어우러져 큰 감동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리라고 결심하게 되고, 또 많은 경우 Tres Dias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필자의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것을 고백했다. 이것은 Tres Dias Weekend를 통해 예수님과 페스카토르들의 사랑을 체험하고 Reunion(재회모임)을 비롯한 후속 모임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의 재생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셋째로, 대그룹이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단 결혼과 이혼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앙생활 전반을 다룬다는 점 역시 문제당사자들의 익명성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대상에 배우자도 포함되고, 또 평신도 로요(간증)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부생활에 대한 간증-어떻게 험악한 사이에서 화목한 사이가 되었는지- 역시 다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결혼위기 문제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로, 평신도와 목회자의 균형 있는 동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하루하루의 성경적, 신학적인 방향 제시는 목회자가 하고, 결론은 평신도 로요를 통해 내리게 한다거나 평신도 로요의 수와 목회자가 인도하는 묵상이나 로요의 수를 같게 한다는 식의 접근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동역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로, 여러 가지 섬김의 의식들은, 예컨대 세족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

124) 필자는 필자와 함께 Tres Dias Weekend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Tres Dias에 대한 평가에는 이들의 평가가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밝힌다. 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의 내용을 참조하라.

게 하고 더 나아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섬김의 자세를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데 유익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태우는 의식을 통해서도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나. 단점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해야할 점들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결혼이나 이혼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 소개한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심각한 결혼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보다 결혼위기와 그 극복 경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로, 카톨릭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촛불 의식, 예배나 기도회를 진행하는 방법, 용어들, 프로그램을 이끄는 방법들). 그래서 다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로요니 페스카도르니 하는 이런 용어들 자체도 생소하고, 일반 교회에서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그 이름도 “부부동산”이나 “행복한 부부” 등으로 고쳐 시도하는 것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로 보여진다.

셋째로, 단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다보니 ‘영적 훈련소,’ ‘영적 유격훈련’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일정도 너무 짝딱하여 충분한 수면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며, 바깥 세상과의 완전 단절을 강요하기 때문에 심이나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자칫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넷째로, 감정적인 분위기에 너무 치우쳐 순간적인 변화로 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체 속에서의 지속적인 돌봄과 격려가 지속적으로 있을 때 상처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은 확실한 토대 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평신도 가정사역의 일환으로 Tres Dias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많은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교회와의 협력관계에 관한 것으로 Tres Dias에 한번 빠지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이곳에서만 봉사하려고 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눈에 차지를 앉아서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교회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교회 전체의 목회 방향과의 조화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제 4 절 Marriage Savers¹²⁵⁾

1. Marriage Savers의 배경과 특징

Marriage Savers는 Mike와 Harriet McManus 부부가 고안하여 시작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Marriage Savers가 종합적인 가정사역 단체로 출범하게 된 것은 1996년이지만 이 사역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15년 전인 1981년부터이다. 마이크 맥마누스는 “Ethics & Religion”이라는 신문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을 쓴 이후로 그는 미국의 윤리 문제에 대해, 특별히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연구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15-50년 동안 건강한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들에게서 결혼과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다. 결혼생활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한 결혼을 유지해 온 부부들은 결혼생활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심각한 결혼생활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를 잘 극복한 부부들(back-from-the brink couples)은 “Marriage Savers(결혼생활의 구원자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Marriage Savers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서 살핀 The Third Option이나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Marriage Savers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다.

어느 교회에나 그 자신들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른 부부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 바를 다른 부부들에게 나누도록 도전 받거나 훈련받지 못한 부부들이 많이 있다.¹²⁶⁾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Marriage Savers는 이러한 부부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그들로 다른 부부들을 돕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고 이를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다.

125) 아래의 내용은 Michael J. McManus, A Manual to Create A Marriage Savers Congregation (Potomac: Marriage Savers, 2000)과 Marriage Savers Information Kit을 참고로 한 것이다. Marriage Savers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marriagesavers.org>이다.

126) A Manual to Create Marriage Savers Congregation, 17.

Marriage Savers는 그 사명 선언¹²⁷⁾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그 사역이 이혼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재의 결혼생활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결혼생활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혼부부 혹은 재혼부부까지도 사역 대상에 포함시킨다.

Marriage Savers의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는 “공동체 결혼 언약 (Community Marriage Policy or Covenant)”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0년 3월 현재 이 결혼 언약을 도입한 교회가 6000개, 도시가 120여 개에 이르고 한다.¹²⁸⁾ 그리고 특별히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을 훈련시켜 멘토 부부(mentor couples)로 세우는 Marriage Savers Congregation 프로그램은 Marriage Savers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다. 미국 내에서 Marriage Savers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Marriage Savers Congregation은 15개 내외 정도다.¹²⁹⁾ 그러나 이들 중 최소한 6개의 교회는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³⁰⁾

2. 프로그램의 내용

교회 안에서 Marriage Savers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Marriage Savers 사역 팀에서 교회를 방문하여 사역을 소개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개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뼈대는 멘토 부부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멘토 부부 선발

Marriage Savers 프로그램은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재혼 부부, 심지어 이혼자까지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멘토의 자격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기

127) Ibid.

128) A Manual to Create Marriage Savers Congregation, 23, 64.

129) Ibid., 27.

130) First Assembly of God Church in Rockford, IL; First Baptist Church in Sioux Falls, S.D.; Fourth Presbyterian Church in Bethesda, MD; Christ Lutheran Church in Overland Park, KS; Killearn United Methodist Church in Tallahassee, FL; Pearce Memoria (Free Methodist) Church in North Chili, NY. 흥미롭게도 Mike McManus 부부가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한 Fourth Presbyterian Church 말고는 다른 5개 교회 모두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 사역이 평신도 중심 사역임을 잘 보여준다(A Manual to Create a Marriage Savers Congregation, 98).

를 겪고 있는 부부를 섬기는 멘토 부부는 15-50년 동안 장기간 건실한 결혼생활을 해 오는 부부로 그 자신들이 결혼의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재혼부부의 이혼 문제를 돕기 위해서는 재혼한 지 5년 이상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는 부부도 멘토가 될 수 있다.¹³¹⁾

한편 Marriage Savers 사역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성숙한 기독교 신앙.
- ② 교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등록교인.
- ③ 목회자의 동의를 받는 사람.
- ④ 결혼한지 15년 이상 된 사람 (결혼준비자나 결혼위기 부부를 사역 대상으로 할 때).
- ⑤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 ⑥ 배우자 두 사람 모두가 결혼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로 동의해야 함.

나. 멘토 부부 훈련¹³²⁾

결혼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를 위한 멘토 부부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커플을 위한 Marriage Savers 사역을 개괄하는 13개의 세션(각각 1시간)으로 이루어진 비디오 강의를 듣고, 우리가 앞서 살핀 Marriage Ministr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멘토 부부의 선발과 훈련은 멘토 리더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3. 평가

Marriage Savers는 앞서 살핀 사역들에 비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보다 포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교회가 등대처럼 지역 사회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결혼과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결혼언약 서약을 시행하는 등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말해주듯이 그 동안 이 사역을 통해 건강치 못한 결혼생활을 미연에 방지했고(80퍼센트 성공), 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다시 회복시켰으

131) Ibid., 177.

132) A Manual to Create Marriage Savers Congregation, 117 이하.

며(90퍼센트 성공), 별거 부부를 다시 화합시켰으며(50퍼센트 이상 성공),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이혼율(예, Kansas City의 경우 2년만에 이혼률을 35퍼센트 감소시킴)을 현저하게 낮추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멘토 부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교회 내에서 평신도 가정사역을 할 때 사역자 선발과 훈련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역 대상에 따라 미혼자 멘토를 둔다거나, 심지어는 이혼 후 재혼한 부부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으면 멘토 부부로 섬길 기회를 주는 등 평신도 자원들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와 회당, 그리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선교단체들과 심지어는 지역사회와 공동전선을 펴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혼위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Marriage Ministry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사역과의 연계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개 교회가 쉽게 시작하기에는 Marriage Savers 사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Marriage Savers 사역팀을 통해서 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제 5 절 Caring Couples Network¹³³⁾

1. Caring Couples Network의 배경과 특징

Caring Couples Network는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을 훈련시켜 성숙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희망하는 다른 부부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에서는 다른 부부를 도울 수 있는 도움부부들(caring couples)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역은 또한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부부들과 도움부부들을 연결시키고, 지역교회와 목회자, 전문 상담가들을 Caring Couples Network Team으로 연계시키는 사역을 한다.

Caring Couples Network는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시작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행하는 평신도 사역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목회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목회자의 상담을 지원하

133) 아래 내용은 Richard & Joan Hunt, *Caring Couples Network Handbook*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96)을 토대로 한 것이다.

고 확장시킨다. 그러나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이나 상담을 대체하기 위한 사역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¹³⁴⁾

2. 프로그램의 내용

앞서의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그러했듯이 Caring Couples Network에서는 도움부부의 선발과 훈련,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 도움부부의 선발

도움부부들로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10가지 자질이 요구된다.¹³⁵⁾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움부부는 기독교적인 결혼의 특성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② 부부가 서로간에 혹은 가족들이 그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입증할 만큼 오래 결혼생활을 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③ 지역 교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④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결혼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유익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다른 부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도움부부들은 Caring Couples Network 팀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역의 원리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나. 훈련¹³⁶⁾

도움부부들은 그들이 돕는 파트너 부부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섯 가지 기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파트너 부부와의 우정과 친밀한 관계 형성하고, 가족의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사랑과 성장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격려하고, 파트너 부부에게 중요한 자료를 연결해 주는 것인데, 훈련은 도움부부가 파트너 부부와 관계 맺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134) Ibid., 6.

135) Richard & Joan Hunt, Caring Couples Network Handbook, 28.

136) Ibid., 32이하.

도움부부 훈련은 기본적인 훈련과 특별 훈련으로 나뉜다. 두 가지 기본 훈련을 받게 하는데, 먼저, 정확한 자기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 Marriage Savers Network Handbook의 6-9장에 제시되어 있는, 파트너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도움부부들이 먼저 자신들의 결혼생활의 면면을 점검해 보게 한다.

둘째로, Caring Couples Network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게 하기 위해 Caring Couples Network 비디오나 핸드북을 이용한 일일수련회에 참석하게 한다.

기본 훈련 다음에 이어지는 특별 훈련에서는 도움부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후속 훈련과 특정한 형태의 부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대화법에 대해 훈련하게 하고, 재정이나 성생활, 직업, 자녀양육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가르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평신도 상담에 대해 배우게 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훈련을 받게 한다. 그리고 도움부부들은 Caring Couples Network Team으로부터 그들의 파트너 부부들에 대한 섬김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지도를 받게 된다.

나. 교회 사역과의 연결

Caring Couples Network 사역은 이들 훈련받은 도움부부들과 목회자들, 전문 상담가들을 연계시켜 상호 점검하고 지원하게 하는 모양으로 계속 사역을 하게 한다. 특별히 교회의 목회 사역과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한다. 예를 들면 부부들을 위한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모임과 연결시키거나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등 다양한 연계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지역사회와 전문 상담가들 혹은 학교와도 연계사역을 펼치고 있다.

3. 평가

Caring Couples Network 프로그램은 평신도 자원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정 사역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 목회자와 전문 상담가들과의 협력 관계 가운데 교회 바깥 지역사회까지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좋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움부부(caring couples)의 자격 범위를 반드시 문제를 경험하고 극복한 부부들에게만 한정짓지 않는다는 점과, 이들의 사역을 좀더 전문적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애쓴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교회 안에

서의 평신도 가정사역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제 6 절 종합적 평가

이제 위에서 살핀 다섯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보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결혼위기 문제에 대한, 특별히 문제 당사자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다. 사실 이것은 이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와도 같다. 그것은 문제 부부들은 희망을 원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결혼 생활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복 의지가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임을, 그들의 희망을, 그리고 그들의 자기 변화 의지를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임을 강조한다. 교회 안의 결혼위기 부부를 위한 가정사역 역시 이와 같은 대전제 위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평신도 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재발견이다. 평신도들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그렇게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의 잠재력은 결혼위기 부부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덧입혀졌었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평신도들이 어떻게 문제와 위기 상황에 처한 다른 지체들을 돕는 것이 가능한지를 잘 보여준다. 특별히 평신도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위기 극복 경험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결혼위기 부부들을 도울 수 있다는 발견은 획기적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 평신도 자원들을 개발하고 훈련하여 정말 희망을 찾아 헤매는 부부들과 연결시키는 훈련과 네트워크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치유와 봉사의 재생산의 사이클이다. 위의 프로그램들은 막연히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 대신 봉사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들 평신도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치유를 받은 이들이 다시금 봉사의 장으로 뛰어 들 수 있는 틀 혹은 장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결혼위기 부부들은 잠재적인 사역자들이다. 결혼위기 부부들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다른 지체들을 굳게 세우는 또 다른 평신도 사역자로 삼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가

정사역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교회의 하나됨을 진작시키고, 치유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가정사역이 어디에 있겠는가?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는 평신도 가정사역을 통해 치유와 봉사의 재생산의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 위의 세 번째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동역이다. 프로그램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신도 부부 사역자들은 지역 교회의 목회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된다. The Third Option과 Marriage Ministry의 경우 지역교회 중심의 접근을 하는데 특별히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이것은 Marriage Savers나 Caring Couples Network 역시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가정사역 역시 이와 같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신도들을 문제가정을 돕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평신도나 목회자 모두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그러므로 지체를 돌보고 세우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상호 협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가정사역은 이와 같은 동역관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이 프로그램들이 제시하는 그 효과가 검증된 구체적인 방법론들 역시 매우 귀중한 것들이다. 문화권이 달라도 결혼생활의 위기의 본질적인 부분은 유사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프로그램들이 제시하는 원리들과 회복을 돕는 핵심적인 접근법들, 방법론들은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 볼 때도 적절하고 적용가능한 요소들이 무척 많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 가정사역을 할 때 이러한 제 원리들과 방법론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프로그램들이 그 자체적으로, 혹은 한국교회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히 가정 문제의 노출을 꺼리는 한국사람들의 정서상 평신도 가정사역을 교회의 공식적인, 따라서 다소 공개적인 프로그램에만 의지할 경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또 비밀보장의 문제도 프로그램들마다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위기의 성격이나 정도 등에 따른 보다 다양한 접근법이 요청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적 상황에 맞는 결혼위기 부부를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제 6 장

결혼위기 부부들을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

핵가족이 무너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는 그 동안 하나의 확대 가족 공동체로서 지체들을 치유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됨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데는 목회자 중심주의 목회철학과 그로 인한 평신도 자원에 대한 무시가 이유가 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앞의 장에서 살핀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한국교회를 공동체가 되게 하고 평신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이 한국교회에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교회 안에서의 결혼위기 부부들을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제언들을 하고자 한다.

제 1 절 의식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의 제언

우리는 앞서 교회안팎으로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즉 이혼을 막고 건강한 결혼을 강화하는 사명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발견한 해답은 다름 아닌 평신도 가정사역이었다.

그러나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 평신도 가정사역을 시작하려면 의식적인 개혁과 구조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혁이 없이는 한국교회 내에 평신도 가정사역이 발붙일 틈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개혁은 목회자 편에서 볼 때는 목회철학의 갱신을 의미하고 일반 평신도 편에서 볼 때는 교회관

과 자기 정체성 및 사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이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구조 개혁은 사실 이와 같은 의식 개혁의 실천으로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 개혁 이전에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식 개혁을 이룰 것인가? 그것은 앞의 제 3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성경적 정초를 다시 놓음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됨이라는 공동체성에서 찾았다. 이 공동체성은 원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창 1:1-3; 요 1:3). 특별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는 위를 가지셨지만, 창조 사역에 다양한 모습으로 동역하심으로써 다양성과 하나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보여주셨음을 주목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의 공동체성이라는 신적 본질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남과 여의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는 공동체, 곧 가정, 이것이 최초의 인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됨의 공동체였다. 타락 이전에는 사역(일) 역시 남녀 모두에 의해 공유되었다(창 1:28).

그러나 죄는 최초의 공동체(가정)에 하나님과 인간간의 그리고 남편과 아내간의 다층적 분리를 가져왔고, 사역의 독점과 위계질서를 가져와 하나됨의 공동체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새 공동체를 약속하셨다(창 12:1-3).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셨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게 하셨다(요 17:11, 20-23; 행 4:32; 고전 12:13; 골 3:15).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한다(고전 12:27). 그런데 이 몸은 하나됨이라는 공동체성과 다양성(은사의, 지체의) 양자 모두를 포괄한다(롬 12:4, 6-8; 고전 12).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한다. 성도는, 평신도이건 목회자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제 몸을 세우는 사역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유물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목회자를 두신 것은 역할상의 구분이지 사역의 질적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지체를 위해 중보하고 헌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벧전 2:9). 따라서 만인제사장의 원리는 다름 아닌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발견이요, 공동체성에 대한 발견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치유공동체여야 한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지체를 감싸고

상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럴 때 공동체성이 진작되고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해진다. 평신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체를 돌아볼수록 교회는 보다 강력한 치유공동체가 될 수 있다. 거꾸로 교회가 치유공동체가 되면 될수록 지체의 각 부분들은 더욱 건강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정 위기 문제는 한국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한국교회는 그 스스로가 치유공동체로 바로 서야 한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곧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모델로 바로 설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개인의 건강이 전제될 때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결혼위기 문제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미주의 한인사회의 경우 개 교회들이 건실한 치유공동체들이 되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의 사역 구조를 가져왔다. 이는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그 만큼 편향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적인 기초 놓는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작업은 장단기적 접근 모두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설교나 특강, 특별 이벤트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인식을 갱신하게 도와야 한다. 평신도들이 객체 교인이 아니라, 주체적인 몸의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보호받는 양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도적 사명을 다하는 제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때로 집중적인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은사를 개발해주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오랜 작업이 요청될 수도 있다. 아무튼 목회자는 기회가 닿는 대로 평신도들에게 공동체성과 은사의 다양성, 사역의 당위성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 개혁이 이루어지면, 혹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이제 구조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의식이 변하면 그 의식을 뒷받침하고 실천할 만한 장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은 시켜 놓았는데, 은사 개발은 해 놓았는데 교회 안에 섬길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의식 개혁은 절반의 성공만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치유공동체와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의식 개혁에는 실제적인 사역의 장에 대한, 교회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구조적 틀은 결혼위기 문제를 돕는 가정사역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역을 가정교회 체제로 재편하거나 교회 안의 소그룹을 다양하게 조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평신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사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일은 목회자와 평신도(특히 리더 그룹)간의 상호협조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설사 평신도 가정사역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한다 해도, 주도적으로 사역을 지도할 코디네이터를 준비시키고, 그 사역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사역이 돌아갈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구조적인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좀더 사역이 깊어지고 풍부해질수록 자원봉사 그룹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사역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협력하는 구조적인 준비도 갖추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구조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프로그램 측면에 관한 제언¹³⁷⁾

이제 5장에서 살핀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교회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평신도 가정사역의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원리적인 면을 정리하고 그 실제적인 준비 과정과 실행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1.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본 원리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 가정사역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결혼위기 부부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은 문제를 겪은 평신도 부부들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을 사역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를 겪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15-50년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들 역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줌으로써, 예를 들어 Marriage Ministry에서 강조하는 균형의 모델을 보

137)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은 결혼위기 문제의 예방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 속의 부부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그 초점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예방적인 차원은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차원은 위기 속의 부부들을 다루는 사역 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없다.

여중으로써 결혼위기 부부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위기 부부의 특성과 대상에 따른 보다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본다.

② 도움부부들이 결혼위기 부부들을 적절하게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킬 뿐 아니라 그 자신들이 후속적인 양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받은 것을 줄 수 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나눔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생활과 결혼 생활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되는 지속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③ 결혼위기 부부를 돕기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목회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부부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평신도 가정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사역의 장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 목회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이 사역을 총괄할 평신도 리더가 세워질 경우에는 역할의 분담 내지는 위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의 목회 사역 방향과 마찰을 빚거나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④ 주로 소집단 접근법이나 부부 대 부부(couple-to-couple) 접근법의 사용이 바람직하나 다양한 방법론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Tres Dias 같이 대그룹 환경 가운데서 좀더 포괄적인 주제로 접근하여 익명성을 요구하는 결혼위기 부부들을 도울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소그룹 환경 속에서 부부 대 부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주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 아마 후자가 평신도 가정사역의 주된 접근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토론식 접근법을 통해 개인적인 결론과 적용의 자율성을 강조하되, 개인의 간증과 원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들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특히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기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정서상 도움부부와 결혼위기 부부간의, 결혼위기 부부들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기밀보장에 관한 철저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결혼생활의 위기를 내어놓기는 그 위기를 이미 잘 겪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훈련 과정 가운데서 나눈 이야기가 교회 안에 소문으로 번져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도움부부 훈련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기밀성이 지켜지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위기 부부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기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밀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 결혼위기 부부의 마음을 달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역 자체의 효과를 침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움부부들과 결혼위기 부부들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연결짓는 일에 이르기까지 기밀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⑥ 사역에 있어서 피드백의 과정을 분명하게 만든다. 도움부부들의 그룹에서 사역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롭게 도출된 문제나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때에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밀성 보장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 선까지 사역 팀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역에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⑦ 봉사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막연한 일회성 행사로는 교회를 치유공동체로 바꿀 수 없다. 평신도 가정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치유를 받은 이들이 다시금 봉사의 장으로 뛰어 들 수 있는 틀 혹은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결혼위기 부부는 잠재적인 가정사역자들이다. 결혼위기 부부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로 다시금 자신들과 같은 문제로 고통하는 부부들을 돕는 평신도 사역자를 삼는 데까지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재회모임(reunion)을 활용하여 그 다음 단계의 헌신으로 이끄는 Tres Dias의 접근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⑧ 훈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가정사역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양육이 필요하며, 6개월이나 1년 후에 평신도 가정사역의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평신도 가정사역이 교회 안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실험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보완을 거듭해야 함을 의미한다.

⑨ 가정사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교회 간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또 전문 상담가 그룹과의 연계 사역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도움부부나 결혼위기 부부의 확보가 쉽지 않은 소형 교회들의 경우는 몇 교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사역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평신도 가정사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물론 평신도 가정사역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이상의 원리들이 전포괄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평신도 가정사역에 대한 사역철학 역시 앞으로 더 개발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개발 단계들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단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가정사역 위원회

교회가 평신도 사역에 대해 눈을 뜨고, 목회철학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의 구조적인 틀을 재정비하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제 가정사역에 있어서의 평신도 자원의 필요성에 대해 교회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선적으로 리더십 그룹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당회)이 함께 교회 안에서의 결혼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부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처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The Third Option의 14가지 워십 주제나 Marriage Ministry의 17가지 원리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먼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거나 가이드라인을 따라 교회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Tres Dias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해 보는 것이다. 평신도 중심의 간증이 중심을 이루는 사역이라는 점에서 The Third Option이나 Marriage Ministry와 유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평신도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그룹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평신도 가정사역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고 책임자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정사역 위원회(가칭)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준비들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앞서 지적한 교회의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나성영락교회의 경우 가정목회를 교회의 7대 비전 중 하나로 삼고 “가정목회부”를 운영하고 있다.¹³⁸⁾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라는 어느 가정사역 단체의 구호처럼 교회가 하나의 확대된 가족 공동체(그리스도의 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담 부서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가정사역을 총괄할 책임자는 초기 단계에서는 목회자가 주도를 하고, 사역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평신도 지도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38) 박희민, 박장수, 나성영락교회 가정목회비전.

경우에 따라서는 코디네이터/전담 책임자의 경우 자원봉사자 개념을 넘어 유급 평신도 사역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나.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 찾기

평신도 가정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역할 결혼생활의 위기와 극복의 노하우를 잘 아는 도움부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보통 감추어져 있다. 결혼위기 부부들이 그러하듯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모른 채 과거의 경험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숨어있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들에게 이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중대형 교회의 경우 목양 담당 사역자들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익명성의 편안함을 원하는 이들을 훈련과 사역의 장으로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Marriage Ministry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의 저녁”과 같은 이벤트가 효과적일 수 있다. 전교인을 상대로 “가정사역의 밤” 혹은 “가정생활 세미나”를 개최하고, 17가지 원리 중 2-3가지나 혹은 12가지 워십 주제 중 2가지 정도를 평신도 부부들의 간증을 통해 듣게 하고 이와 같은 평신도 부부 사역자들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혹은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일단 결혼위기를 경험했으나 잘 극복한 부부들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처음부터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잠재가치에 대해 자각하게 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진실된 헌신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원자들이 직접 훈련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과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의 결혼생활이 건강한지, 어떻게 결혼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결혼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하는 자격 조건을 교회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The Third Option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라.

다. 도움부부 훈련

도움부부 훈련은 어떠한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핀 The Third Option의 12가지 워십 주제나 Marriage Ministry의 17개 원리는 개 교회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기에 적절할 것이다. 도움부부들은 먼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제로 프로그램 내용을 해보고, 어떻게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진

솔하게 전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 실습해보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때로는 토론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간증을 도움부부 그룹 사이에서 나누고 다듬어 가는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Tres Dias).

중요한 것은 도움부부의 역할은 충고나 설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을 제시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결혼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전달해 주는 데 있음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때 도움부부 그룹 상호간의 피드백과 의견 공유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각자가 겪었던 결혼위기의 특성과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위기의 모든 부분들을 다 겪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훈련 중에 있는 혹은 이미 도움부부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부들 상호간의 피드백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라. 결혼위기 부부 지원 사역

이제 도움부부들에 대한 훈련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사역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목회자나 코디네이터의 중요한 사역이 될 터인데, 사역의 장이 없으면 훈련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결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찾아내고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자기 가정의 문제가 알려지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희망의 저녁” 이벤트는 이들에게도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부각된 자리가 아니라 보다 공적인 자리에서 도움부부의 간증을 듣게 되고, ‘아, 저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구나.’하는 동질감에 대한 자각과 함께,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위기극복 성공담을 듣고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와 비슷한 류의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 경험으로 인해 동기부여를 받은 결혼위기 부부들이 회복의 의지를 굳게 붙들고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목양 사역자들의 채널을 통해 혹은 평신도 구역장이나 리더들을 통해 이러한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도움부부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

안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한 모집 단계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결혼위기 부부의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목회자가 직접 참석을 권유하기보다는 주변의 평신도 리더나 소그룹 멤버들이 참석을 권유하고 사역에 대해 홍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결혼위기 부부들을 돕는 사역은 일단은 한정된 기간을 정하고 제한된 세션 과정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8주나 10주 정도의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Tres Dias의 경우 2박 3일로 짝짝하게 진행된다보니 도움부부가 결혼위기 부부들의 삶의 변화를 측정하면서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 수련회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주 간격으로 소그룹 형식으로, 부부 대 부부(couple-to-couple)로 친밀감을 쌓고 교제하면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물론 프로그램 참여가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후속 양육과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Tres Dias의 재회모임(reunion)이 이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가지 평신도 가정사역의 장은 바로 구역(목장 혹은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이다. 이와 같은 가정교회들을 통해 간증이 나누어지고 이 소그룹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부부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자기 변화를 얻게 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교회가 이 소그룹을 이끄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정생활이나 결혼생활의 제 문제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거나 구성원들 간에 그와 같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그와 같은 가정사역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경우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평신도 가정사역의 효과를 매우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 7 장

결 론

평신도 가정사역은 각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계속적으로 갱신해 가는 일에 기여한다. 또한 평신도에 의한 가정사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관계 안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참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평신도 가정사역자를 훈련시켜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가정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 가정사역자들이 교회의 가정사역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식적인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며,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대형 교회들에서는 평신도상담을 도입하지만 이와 같은 사역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은 상담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전문 상담사들이 현실이다.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가정사역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앞서 살핀 결혼위기를 극복한 평신도 부부들을 활용하는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이 미국교회에 가져다 준 성과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본 논문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평신도에 의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입증해 주었다. 그러므로 평신도 가정사역은 한국교회가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필자는 바로 이와 같은 평신도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에서의 평신도 가정사역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제 2장에서 한국사회에서의 결혼위기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했으며, 한국교회의 평신도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를 평가해보았다.

제 3장에서는 평신도 사역과 치유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의 신학적 근거에 대해

고찰을 했다. 여기서 필자는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 지체를 세우고 격려하는 사역에 평신도들이 동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제 4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치유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리고 평신도 사역의 물꼬를 트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제 5장에서는 결혼위기 부부들을 돕기 위한 5가지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결혼위기 부부들을 돕기 위한 가정사역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 제언들은 1) 미국에서 이미 실시되어 그 효과가 검증된 The Third Option, Marriage Ministry, Marriage Savers, Caring Couples Network 등의 네 가지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2) 현재 한국교회와 미주의 한인 이민교회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Tres Dias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3)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도출된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이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과 별로 다를 바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교회가 더 이상 이 사역을 미룰 수 없다. 엄청난 자원을 교회 안에 묻어두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 되겠는가? 한국교회는 하루 속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치유공동체를 세우고 평신도 자원을 통해서 결혼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훈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가정사역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양육이 필요하며, 6개월이나 1년 후의 평신도 사역의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평신도 가정사역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위기 부부들을 돕기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이 한국교회에서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첫째, 논문에서 필자가 한 제언들을 기초로 한 결혼위기 부부들을 돕기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모델들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 교회의 특징들에 따른 몇 가지 다른 모델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개발될 모델들을 실시하는 과정에 관한 임상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모델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 록

부록 1 주제에 따른 균형 잡힌 태도

주제	극단 1	균형잡힌 태도	극단 1
존중	배우자들 전혀 존중 않음	주장훈련	자신을 전혀 존중하지 않음
책임	책임을 항상 떠넘김	적절한 책임의식	책임을 항상 떠맡음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만 고집	우리의 기대: 상호적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만 고집
기 싸움	항상 이기려고 함	힘을 공유함	늘 지는 편임
절제	항상 억누르려고 애씀	자기 절제	운명이라 여기고 포기함
대화	듣기를 거절함	상방향 대화	말하기/나누기를 거절함
인성 차이	차이를 강조함	차이를 인정함	차이를 무시함
어린시절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임 (대본을 수정할 수 없음)	학습하고 치유함	과거의 상처의 결과들 인식하지 못함
분노	분노를 꼭 참고 억누름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함	분노를 과도하게 나타냄
갈등 해결	일방적인 의사결정	협상함	자기 입장을 끊임없이 바꿈(해결책 발견 못함)
상처 사이클	보복	대화	답을 씹음
용서	용서하기를 거절함 (원한을 품음)	자기 편에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너무 쉽게 용서함
신뢰	신뢰하지 않음 (친밀한 관계들 두려워함)	테스트 해봄	너무 쉽게 신뢰함 (잘 속음)

(The Third Option, Chapter 1-19)

부록 2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 훈련 스케줄

세션 1

1교시: 비판과 오리엔테이션의 형태

2교시: 결혼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의 간증과 화해에 대한 토론 (첫 2 가지 주제 개관)

세션 2

1교시: 존중 워킹과 한 커플의 간증

2교시: 책임과 비난 게임 워킹과 한 커플의 간증 (다음의 2가지 주제 개관)

세션 3

1교시: 기대 워킹과 간증

2교시: 부부싸움 워킹과 간증

세션 4

1교시: 절제에 대한 이슈 워킹과 간증

2교시: 듣기 워킹과 간증

세션 5

1교시: 성격 차이 워킹과 간증

2교시: 어린시절 워킹과 간증

세션 6

1교시: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루기 워킹과 간증

2교시: 말하기 워킹과 간증

세션 7

1교시: 갈등 해결 워킹과 간증

2교시: 상처 사이클 워킹과 간증

세션 8

1교시: 용서 워킹과 간증

2교시: 신뢰감 회복 워킹과 간증

부록 3

Marriage Ministry에 헌신하는 도움부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Handout #4)

1. 당신은 당신이 받은 것만을 줄 수 있다.
2.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 a.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허락했을 때 당신이 문제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셨다.
 - b. 하나님은 고통받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역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3. 비밀 보장
 - a. 그룹 안에서 듣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한다.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기도 파트너나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누설하면 안 된다.
 - b. 우리가 돕는 사람들: 만일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나 그룹 혹은 심리 치료사에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들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
4. 권위

우리는 _____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당신의 교회의
당신의 목회자의
코디네이터의
5. 좋은 “상담” 과정을 사용하라

(우리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 상담가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돕는 사람들에게 대해 상담가들 이상의 돌봄을 제공한다)

 - a. 판단하지 말 것.
 - b. 설교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라
 - c.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들어주라
 - d. 성적으로 유혹이 될 만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부부 대 부부 상담이나 남편들끼리 혹은 아내들끼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 e. 삶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고통받는 부부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 f. 보통 사역은 당신의 교회나 공공 장소에서 행해지게 될 것이다.

부록 4

Marriage Ministry 도움부부 헌신 서약서

날짜 _____

교회 _____

목사 _____

사역 헌신서

기도 후에

우리 _____

_____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임명한 코디네이터의 권위 아래

우리를 고통받는 부부들을 섬기는 일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서명 _____

부록 5 Tres Dias 용어

용어	해석
Cursillo(쿨시요)	“Cursillo de Cristiandad” 또는 기독교 세미나라는 약자. 스페인에서 유래된 Cursillo 운동은 Tres Dias의 근원이며 모든 스페인어 단어들의 파생을 설명해 줍니다.
Tres Dias (프레스 디아스)	스페인어로 삼일이란 뜻. 혼돈을 막기 위하여 ‘Cursillo’를 모델로 한 비천주교 운동을 위해서 지어진 이름.
Cursillista (쿨시이스타)	Cursillo를 제작하는 사람. 또는 Cursillo를 만든 사람.
Pescador (페스카도르)	문자적으로 어부라는 뜻. Tres Dias 주말 기간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으로 복수는 Pescadores
Rollo(로요)	문자적으로 통나무와 같이 굴러가는 것. 의역해서 영원히 굴러가는 듯한 길고 지루한 강의로써 풍자적인 합축어입니다. Tres Dias에서 주어지는 강의를 서술하는 데 사용됩니다.
Rollista (로이스타)	Rollo를 전달하는 사람
Candidate (후보자)	Tres Dias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후에 Pescador가 됩니다.
Ultreya (울트라야)	“전진하다.” 또는 “참다, 견디다”라는 뜻의 회화체 표현. 순례여행에서 스페인 순례자들을 앞으로 전진하도록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음. Cursillo 운동에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모든 Cursilliscas의 정기모임을 일컫는 말로 사용됨. 때로는 “그룹재회 모임”을 일컫기도 함.
Secuela (세과일라)	문자적으로 “주기” 또는 “계속”이라는 뜻. Ulteya의 Tres Dias 동의어.
Abrazo (아브라조)	문자적으로 “포옹”이란 뜻.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인사나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내는데 사용됨.
Agape (아가파이)	헬라어의 “사랑”이란 뜻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사랑 축제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됨. “아가페”라는 단어는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며 친족간의 사랑인 필리오와 구별이 된다.
Palanca (팔란카)	문자적으로 “지렛대, 손잡이” 미국회화체로 번역하여 “당기다” 또는 “영향을 미치다”. Tres Dias에 사용될 때는 단순한 인사말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자진해서 주는, 또는 희생을 통한 사랑의 표현.
Reunion (재회모임)	Reunion이나 Group Reunion은 세명 내지 여섯명이 보통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나누어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Mananita (만야네타)	문자적으로 A little good morning. Tres Dias에서 전통적인 일요일 아침 세레나데. 필리핀에서의 Cursillo 운동에서 유래됨.
Secretariat	Tres Dias의 조정 위원회
Rector	Tres Dias 팀의 최고 지도자. 종교적인 어감으로서가 아닌, 학생단체의 장이라는 학술적인 어감으로 사용됨.

부록 6

결혼위기 부부들을 위한 평신도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목회자 대상)

성명: _____

나이: _____

목회지: _____

The Third Option

1. 장점은?

2. 단점은?

3. 수정할 점들은?

4. 적용상의 문제들은?

5. 해결방법은?

6.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철학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1) 한국 목회자들에게

Marriage Ministry

1. 장점은?

2. 단점은?

3. 수정할 점들은?

4. 적용상의 문제들은?

5. 해결 방법은?

6.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철학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1) 한국 목회자들에게

치유공동체로서의 한국 교회와 평신도 사역

1. 왜 한국 교회가 치유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평신도 사역이 안되나?

2. 해결책은 무엇인가?

부록 6-1

The Third Option에 관한 설문 결과

1. 장점은?

가. 박혜성

1.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부에게 결혼과 이혼 이외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많은 부부들이 지겹더라도 이혼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사는 부부들이 있는데 결혼생활을 더 윤택하게 지탱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희망을 갖게 한다.
2.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한곳으로 집중시킴으로써 부부들이 자신의 문제를 여러 곳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변호사와 법원, 그리고 약 복용, 그리고 상담까지 모두를 한곳으로 집중한다는 것을 부부간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루면서도 전혀 노출을 꺼려하는 부부에게 더욱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다룰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서는 문제 부부를 이미 간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으며 그 문제를 어찌면 여러 각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의 문제를 표면에 떠올릴 때면 벌써 부부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해결 내지 치료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므로 교회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한곳으로 집중 할 때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4. Networking으로 인해 주위에 많은 Support group이 있음을 보여 줌으로 부부에게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특히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에서 어떤 extended family가 갖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또한 노부부의 가정에서 그들의 결혼생활을 지탱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하는 것을 정신적 심리적으로 크나큰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문제의 초점을 내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둬므로 이 프로그램이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부부들의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바꾸려다 실패한다는 점이다. 본인의 미성숙에서 오는 갈등이라든지 혹은 상처로 인해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보다 아마도 성숙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방성일

문제를 극복했다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인 듯 하다. 그리고 자신의 변해야 할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그룹토의 식의 모임이 미국식의 프로

그램이며, 무엇보다도 행적, 희망의 소제를 듣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한 혹은 동일한 경험자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기 때문이다.

다. 김송식

학문적인 상담의 기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므로 쉽게 치유할 수 있으며 평신도가 할 수 있으므로 교인과 대화의 장도 여는데 목회자 보다는 쉬울 수 있을 것 같다.

라. 최동주

같은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라는 폭넓게 다루고 폭넓게 해결책도 볼 수 있다.

동질 그룹 안에서보다 진한 공감을 교환함으로써 수치감을 줄이고 위로감을 높일 수 있다.

서로를 돕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양육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그램에 편안히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과정을 거친 staff들이 본인들의 체험을 소개함으로써 좋은 안내를 제공함

14가지의 주제로 한정함은 그 외, 목표기간을 알고 그 내용을 예상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예측과 매번 주제가 한정되게 다뤄짐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글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생각하게 하는 사역자로 성장케 한다.

마. 이계안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좋았고, 어려운 경험자들이 참석한다는 점도 좋았고, 잘못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점이 좋았다.

2. 단점은?

가. 박혜성

1. 교회에서 이루어 질 경우, 노출을 꺼려하는 부부에게는 모두에게 알리는 결과를 (비록 confidential로 취급한다해도) 원치 않을 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한곳으로 집중할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저항을 느낄 것이다.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혹은 한쪽만 다닌다든지 할 경우는 모든 것이 교회중심으로 이루어 질 때 약간은 배타적일 수도 있다.

3.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 돕는 그룹으로서의 역할과 상담과의 차이점, 어떤 사람들이 훈련받았는지, 전문가의 고문 역할 등등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4. 자원적 봉사의 경우 얼마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지에 대한 한계도 밝혀야 할 것이다.

나. 방성일

함께 나누다 보면 비밀스런 이야기들이 노출되게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엉뚱한 부작용을 낳는 우려가 예상된다.

다. 김송식

상담자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피상담자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 최동주

해결책위주로 신입회원을 인도하려하다 보면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가능하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않게 되거나 우물 안 개구리적 사고를 할 수도 있음

마. 이계안

어려움이 있다 좋아진 마땅한 책임자 부부들을 찾기가 어렵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음.

3. 수정할 점들은?

가. 박혜성

1. 먼저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예방 적 차원인지, 치료적 차원인지를 구분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적인 배경과 가족의 배경 등을 연구할 필요 가있다. 예를 들면 1세, 1.5세 2세의 한국사람, 또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모두들 한곳에 넣을 경우에 일어날 예상 적인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나. 방성일

다. 김송식

문제의 가정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변화를 기록하거나 모니터 하여

좀더 자세히 이해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과학적이며 상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라. 최동주

마. 이계안

미리 미리 책임자를 준비해 놓아야 함

4. 적용상의 문제들은?

가. 박혜성

1. 한국사람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공중에게 알리며 치료받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2.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나. 방성일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역시 인내의 한계에 부딪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 김송식

라. 최동주

부부간의 합의가 잘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함께 참석할 수 있는지, 한국인을 위한 그룹이 많지 않을텐데.

마. 이계안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가장 ideal한 책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때때로 delegate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5. 해결방법은?

가. 박혜성

1.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스스로 실행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2. 훈련에 참여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성경

에 지식과 또한 스스로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슷한 기관에서 봉사하며 실질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돕는 기관으로서 적절한 한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 또는 치료기관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4. 이러한 기관에 소명을 갖고 헌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풍성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 방성일

개 교회 실정에 맞는 형태로 수정하고 적용하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다. 김송식

평신도들이 은사별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점검하고 은사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가정의 중요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교회에 가정사역부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가정사역을 할 부서를 만들고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며 문제 발생 후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예방 목회가 되어 지도록 가정 사역에 대한 철학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라. 최동주

도움 받는 couple이 staff 임으로 일하게 될 때 충분한 양육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질적 양적으로 group이 성장하게 하고 교회사역과 마찰 없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마. 이계안

Delegate 훈련을 (목회자가) 받아서 Sharing Ministry를 해야 된다.

6.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철학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1) 한국 목회자들에게

가. 박혜성

1. 목회자 자신의 부부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배우자에게 건 강한 생활임을 보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꼭 보이기 위한 것이

-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며 발전하며 성숙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는지
2. 신학적인 틀에 매여서 상황과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3. 목회 부흥 면에서 가정목회를 수단이 아닌 진정한 성도의 풍성한 삶을 위한 것인지
 4. 평신도의 영적, 심리적 사회적 지위가 한국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는데 과연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나. 방성일

먼저 목회자의 인식변화가 급선무란 생각이 든다. 가정사역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알아야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평신도들의 숨은 재능이 얼마나 교회에 에너지가 되는지, 역시 이 부분에도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세 번째, 평신도들은 정말 답답한 일에는 목회자보다 평신도에게 쉽게 털어놓는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 김송식

라. 최동주

이 사역을 기존 목회철학의 교인 두드리기에 이용하려는 정도의 생각을 넘어서야 좋다. 아니 차라리 “가서 제자삼으라”는 말씀대로 목회자가 문제 가정과 개인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교회에 끌어들인다 기 보다 그들에게 받는 그룹을 찾거나 만들어 주는 넓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교회의 이기적 구조중심이 이타적 중심으로 좁은 중심이 넓은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한다.

마. 이계안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Team Work 특히 layman과의 Team Work가 어렵다.

부록 6-2

Marriage Ministry에 관한 설문 결과

1. 장점은?

가. 박혜성

1. 전문가가 아닌 순수한 평신도들의 역할이 큼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평신도들의 결혼생활의 위기와 갈등을 직접경험을 통해 그리고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보여준다.
2. 전문적인 결혼상담보다 오히려 평신도들의 상담이 효과적임을 직접 보여준다.
3.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사역에 동참케 했고 효과적인 결과들 얻었다.
4. 사역을 모두 목회자 혼자서 해야 한다는 통념을 바꾸게 한다.
5. 이 프로그램은 비 형식적이어서 실행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나. 방성일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결한 부부들이 직접 문제 부부를 도와주는 형태가 탁월하다. 어떤 책에서 이론을 가르치지 않고 실제의 경험들로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강점이라 생각된다. 사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론보다 경험(실제)이란 생각에서 더욱 이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다. 김송식

학문적인 상담의 기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므로 쉽게 치유할 수 있으며 평신도가 할 수 있으므로 교인과 대화의 장도 여는데 목회자 보다는 쉬울 수 있을 것 같다.

라. 최동주

극복한 소그룹과 극복전의 소그룹의 만남으로 공감대와 경험전달대가 가장 가까운 방법 같다.

충분한 사역진들이 선행되고, 거기서 배운 것을 충분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행동할 것을 명시화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전문가 도움 없이도) 변화된 행동에 까지 이르는 “자아성숙”을 이루게 되고 문제 부부끼리의 교제를 통해 “이웃과의 교제 및 이웃 성숙 동기”를 이룰 수 있다.

소그룹도 그룹이므로 인도자를 잘 선택해 토론이 잘 진행되게 함으로 민주적 Leadership을 키울 수 있고, 그것은 적절한 인도와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소그룹 다이내믹의 훈련이 됨으로 평신도 지도력양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정된 17개 상황원칙을 다룸으로 가시적 목표의식을 참여자가 갖게 됨.

마. 이계안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좋았고, 어려운 경험자들이 참석한다는 점도 좋았고, 잘못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점이 좋았다.

2. 단점은?

가. 박혜성

1. action statement가 매우 효과적으로 부부생활에 지침이 되면서도 항상 statement 는 활용하고 또한 계속 revise 할 때 효과적이다. 원리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면서도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이 떨어지므로 계속적으로 statement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2. 평신도 사역이 효과적이면서도 또한 피상적으로 대화이상을 넘어가지 못 할 때도 있다. 그 차원을 어떻게 극복할 것 인지와 confidential 문제를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3. 비형식적인 만큼 흐름이 목회자가 계획하는 대로 흐르지 못할 경우 어떻게 그 흐름을 잡을 것인지 그 타이밍을 잡을 시기가 언제인지 알기 어렵다.

나. 방성일

함께 나누다 보면 비밀스런 이야기들이 노출되게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엉뚱한 부작용을 낳는 우려가 예상된다.

다. 김송식

상담자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피상담자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 최동주

기밀성의 약속이 깨어질 때 개인과 교회가 상처받게 됨.

중간중간(여기Paper에는 6주에 한번) 향상된 정도의 점검은 게을리 하면 목표의식이 떨어지고 mentoring의 부재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마. 이계안

어려움이 있다 좋아진 마땅한 책임자 부부들을 찾기가 어렵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음.

3. 수정할 점들은?

가. 박혜성

1. 간략하게 실행지침과 계획을 잡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상담자들이 해야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지침을 어느 정도는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평신도 중에서도 평신도와 목회자와의 대화 시간이 필요하며 그래서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방성일

다. 김송식

문제의 가정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변화를 기록하거나 모니터 하여 좀더 자세히 이해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과학적이며 상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라. 최동주

한정된 기간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허나 되지 못할 사정으로 못 참석할 때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고로 AA 모임처럼 부담 없이 계속 진행되면서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는 모임도 있으면 더 좋겠다.

마. 이계안

미리 미리 책임자를 준비해 놓아야 함

4. 적용상의 문제들은?

가. 박혜성

1. 어려운 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만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일 지 혹은 기대 이하일수도 있을 것이다.
2. 헌신할 사람을 찾는 것과 지속적인 만남과 그리고 확인 연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과 시간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 등이다.

나. 방성일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역시 인내의 한계에 부딪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 김송식

모일 때마다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음식을 나누고 좋은 대화를 나누므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이후 상담을 하므로 좋았다고 말하나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상담의 분위기가 안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라. 최동주

문항 3 참조.

마. 이계안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가장 ideal한 책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때때로 delegate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5. 해결방법은?

가. 박혜성

1. 헌신할 사람을 찾아 평신도 그룹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리고 독립적이면서 가정 목회의 자리를 교회와 목회자가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2.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사역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1년에 몇 차례씩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도 세미나 등 공식적인 차원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예비 부부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도 생각할 수도 있다.

나. 방성일

개 교회 실정에 맞는 형태로 수정하고 적용하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다. 김송식

평신도들이 은사별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점검하고 은사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가정의 중요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교회에 가정사역부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가정사역을 할 부서를 만들고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며 문제 발생 후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예방 목회가 되어 지도록 가정 사역에 대한 철학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라. 최동주

질적, 양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개척자 정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하겠고, 특히 오랜 경험이 축적된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의 배움을 거쳐서 한인 사회에 맞는 적용까지 됐으면 한다.

마. 이계안

Delegate 훈련을 (목회자가) 받아서 Sharing Ministry를 해야 된다.

6.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철학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1) 한국 목회자들에게

가. 박해성

먼저 한국적인 사고는 필요성을 느낄 때 너무나 공식적인 차원부터 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처럼 먼저 작은 실행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목회는 모든 사람들의 소명과 헌신과 그리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목회자 혼자서 하려는 경향을 버려야 할 것이다. 특히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목회현장에 끌어들여 그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귀중한 교훈과 목회의 자료가 되는지 목회자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 밖에서의 목회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목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방성일

먼저 목회자의 인식변화가 급선무란 생각이 든다. 가정사역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알아야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평신도들의 숨은 재능이 얼마나 교회에 에너지가 되는지, 역시 이 부분에도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세 번째, 평신도들은 정말 답답한 일에는 목회자보다 평신도에게 쉽게 털어놓는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 김송식

라. 최동주

평신도 리더십 양성과 가정사역이라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대화로 시작하는 모든 관계의 기초를

훈련할 수 있고 수직적 목회관계에서 수평적 관계 및 섬기는 관계로의 관계완성을 이룰 수 있다.
막연한 목회 계획에서 계획성 있는 목회로의 전환점을 꾀할 수 있다. 시간상으로나 목회대상이나 간에.

마. 이계안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Team Work 특히 layman과의 Team Work가 어렵다.

부록 6-3

치유공동체와 한국교회에 관한 설문 결과

1. 왜 한국 교회가 치유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평신도 사역이 안되나?

가. 방성일

- ① 목회자의 인식 결여에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 ② 한 개인의 치유와 성장보다 교회자체의 성장위주(물량주의)로 가고있기 때문이다
- ③ 목회자는 평신도들의 숨은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김송식

한국교회는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평신도에게 사역을 분담하여 나누어준다는 것이 어렵고 Leadership Style에서 일반적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분담하고 함께 사역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평신도 자신도 각기 은사대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일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아직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생각된다.

다. 최동주

목회 방향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기초 부분을 싸구려 구원, 속결구원으로 시작하는 잘못된 시작. 구원된 영혼이 다른 영혼을 돌보고 나아가서 서로 돕는 인간관계로 발전되어야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텐데 구원된 영혼이 진정 이웃을 돕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대신 자기 자신만을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교회의 출석 내지는 외적인 활동을 최종 관심으로 갖게 인도함으로 남을 치유하는 흐름 대신에 자기 자신과 내 교회, 내 가족에만 머무는 폐쇄된 관계에서 남을 치유하는 데로 못나감.

라. 이계안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Team Work에 아직도 미숙하다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격차구별이 심하다
 권위 의식이 잘못 되었다.
 Ministry의 참뜻이 분명치 않다
 Delegate 훈련이 안돼 있다
 교회공동체의 참뜻이 분명치 않다

2.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 방성일

- 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정사역으로 든든히 서가고 행복해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 ② 세미나를 통한 목회자 인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 ③ 가정사역 기관들의 활달한 활동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회에 심어가는 것

나. 김송식

목사님들이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비교의식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관심이다. 정말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또한 영혼의 need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사역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목사님들의 목회 방향 설정에 있어서 목사님들과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사역에 쓸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폭넓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의 평가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받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한다면 달라질 것이다.

다. 최동주

교회 성장에 모든 것을 짜 맞추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회성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기초를 부실이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너무 빠른 시간에 하려함으로, 높이 건물을 올라 갈수록 부실한 기초는 더 부담을 받아 무너지게 되고 더 높은 상태에서 무너질 때, 그 손실은 더욱 크고 아픔도 더 커진다. 구원의 단계부터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준으로 착실히 개인을 성장하게 해야함. 평신도들이 목회자 보다 못하게 성장을 억제시키려 말고, 목회자 이상으로 성장하게끔 목표를 상향조정한다. 목회자가 평신도와 먼저 섬기는 자세로 내려와서 교제함으로 거리감이 줄어들 때 목회자에 대한 거부감이 내려간다.

라. 이계안

우선 Team Work의 훈련을 받아야한다
 Delegate 할 줄 알아야한다
 고정관념을 버려야한다
 권위의식을 시정해야한다
 Ministry의 참뜻을 알아야한다
 종의 위치를 또 Leadership의 정의와 실천이 잘 돼야한다.

부록 7
프레스디아스에 대한 설문조사

이름: _____

나이: _____

교회: _____

1. TD 참석전의 들었던 소문

2. 참가 동기

3. 좋았던 점

4. 안 좋았던 점

5. 수정할 점:

6. TD를 끝내고 내가 달라진 점

부록 7-1

Tres Dias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이름: 김현석(이하 모든 이름 가명)

1. 참석자들을 통해 너무나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음
2. 목사님의 끈질긴 설득과 인연을 끊겠다는 협박을 통해,
또한 아내의 냉철한 침묵을 통해
3. 이른 아침 하나님과 둘만의 대화를 아무 세상 걱정 없이 나눌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음
4. 전혀 없음
5. 없음
6.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하루하루를 여는 나의 마음이 무척이나 가볍고 이 은혜를 오래 사모하고 간직하고
싶어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가한다
참가 전에는 앞날의 불안함으로 무척이나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너무 걱정을 안 하나 싶어 걱정이 다
또한 23년간 피운 담배도 단번에 끊을 수 있었다. 난 안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사람의 의지대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간 여러번 시도 해 보았지만은 역시 기도 없이 하는 사람의 노력이란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역시 성령님이 임하시니 하나도 힘든 것이 없었다.
단번에 끊을 수가 있었다.
신기하게도 다른 때에는 느꼈던 금단 현상도 전혀 없었다. 할렐루야!!!!!!

이름: 김하영

1. 너무너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2.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3. 다른 도시의 형제 자매들과 만남을 갖게되어 좋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어울려서 지상 천국을 맛보게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4.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지 잠이 좀 모자랐고 개인 개인의 기도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았습니다.
5. 샤워시설이 좀 불편하였습니다.
6. 교회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고 담배끊고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생활하게 되었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며 사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박영선

1.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 신앙 생활하는 것이 많이 바뀌어짐을 봄.(더 많이 충성적이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등,)
2. 오랫동안 (1년 이상) 목사님의 권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대
3. 빈틈없는 스케줄
찬양
많은 간증들(내 자신과 비교 할 수 있었고 나 자신의 문제가 항상 제일 큰 것 같았는데 작은 문제 주셨던 것을 많이 감사했음)
4. 화장실(샤워시설, 찬물만 나눔)
방이 너무 추웠음 (잠자리가 너무 추웠음)
5. 화장실이 좀 좋았으면 좋겠음
프로그램은 모르겠음

6. 하나님과 가까워짐 (구원의 확신이 있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성경 읽기, 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함, 아직까지 잘하고 있음

설명: 최한수

1. 3박 4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평상시 소홀하여 체험하기 힘든 unconditional한 사랑체험(국민대접) 의지성을 갖춘 Program으로 기대감을 유지하게 만듦.

신앙체험을 간증으로 staff를 통해 들을 수 있다면 (?) 좋은 분위기에 어우러져 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taff의 무조건적 섬김

2. 짧은 시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무리가 많이 보임

일정이 너무 빡빡함(잠자는 시간까지 너무 줄임)으로 편안함을 주려는 분위기 조성과 어울리지 않는 점.

이성적 변화를 소홀히 하고 감정적 분위기에 치우침으로 순간적 변화로 그칠 가능성이 많음

3. 위에 열거한 단점을 생각하여 일방적 메시지 전달을 지양하고 대화로 시작하고 토론으로 생각을 넓히고 합리적 결론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open 시켜야 함 (진행자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달한 모임에서 벗어나야) 감성을 향상시키되 이성적 향상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4. 해결방법/목회철학

“프레스디아스”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독선적 교인, 독선적 목회자를 만들지 않도록 [소기의 목적]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목회관을 가져야 함. 목회자가 교인 양육을 제대로 하려면 한사람 한사람을 개별적으로 본인에 맞게 평가해야 맞게 성장시킬 수 있다. 도매금으로 평가하면 싸구려 교인을 만들뿐이다.

설명: 정인교

1. 천주교에서 유래되어 위험(?)하다

한번 빠지면 교회에서 봉사보다 이곳에서만 봉사한다.

감정에만 치우치고 성경말씀은 보지도 않는다.

이성간의 접촉이 너무 많다(악수, 포옹)

2. 담임목사님께서 다녀오신 후 적극 추천하심
(매우 보수적이시고 말씀 중심을 강조하시는 목사님)
1년 전 교회 분란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 받고자
알아보고자 하는 호기심
3. 기간동안: ◎ 많은 용어가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었다(지금까지도 많은 용어는 어색함)
◎ 간증, 많은 복음서가 부르기, 그룹활동 및 중보기도 등은 주님의 사랑을 다
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됨
◎ 깜짝쇼 같은 몇몇의 사건은 감정만 touch 한다 생각하면서도 내 자신 평안
함을 느끼고 재미도 있고 낯선 성도끼리 곧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이런 분
위기에도 한번 빠져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었다
◎ 아주 잘 계획된 event 인줄 알면서도 굳어버린 감정을 열게되고 사랑에 굽
주린 영혼이 간절히 주의 사랑을 갈망한다.
6. 그 후: ◎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다
◎ 교회 행사에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하게됨(준비, 진행, 마감)
◎ 소문 염려했던 것, 곧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 초신자보다는 신앙이 확고한 분들께서는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이름: 신은옥

1. TD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들 했지만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흘러버렸습니다.
2. 참가 2주일 저 목사님께서 저의 남편을 TD에 가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겠
다 했는데 여유가 되지 않아 대신 나라도 가라는 남편 말에 쉴 겸 가고 싶다 생각하
여 참석했다.
3. 가끔 아이들 걱정은 했지만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에서 여러 RTD 51기 동기생 분
들과 많은 시간을 갖으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짜여진 스케줄이 짧게 느껴
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찬양의 시간에는 정말 어린아이 심정이 되어서 주님께 찬양
하고 기도 시간에는 깊이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었으며 Rolo 시간에는
Table team 끼리 마주앉아 토의 할 때는 마치 가족과 같은 느낌 이였습니다. 기회
가 주어진다면 한번 더 참석하고 싶을 정도의 미련을 버릴 수가 없고 이곳에 있으면
서 세상을 가까이 하게될 때는 그때 그곳을 생각하며 은혜를 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4. 부정적인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5.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시간표가 잘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6. 동산에 있을 때보다 세상에 내려오니 새삼 나의 영이 깨끗해 졌음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이전에 없던 눈물은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름: 박진숙

1. TD에 참여했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며, 꼭 한번 참여해 볼 것을 적극 권유받았다.
2. 그동안 시간관계상 미루어 오다가 남편이 2개월 전에 다녀온 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3. 눈 코 뜰 새 없이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곳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었으며, 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Team member들이 보여준 귀한 사랑과 섬김에 너무나 감격하여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다. 함께 새간을 보냈던 동료들과 함께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귀한 날들이 될 것이다.
4. 없음
5. 없음
6. 마음속에 감사 기쁨 평화가 넘침,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실감하게 되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다.

이름: 정상영

1. TD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만 은혜 받는다. 또 천국같이 잘해준다.
2. 지난 2년 동안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많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참석할 수 없었으나, 참가하기 2틀 전에 목사님의 강권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3. 맑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점, 참가자들의 열정, 프로그램의 배정이 좋았다.
4. Rollo 시간이 Review 시간 없이 지나가는 듯하고 쫓겨 진행되는 감이 있다. 분산되어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밖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못하게 한 것이(설명 없이) 안 좋았다.
5. TD의 목적은 세상에 나와서 받은 데로 행함에 있으므로, Rollo 과목을 적용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바뀌었어도, 세상 밖은 3일전과 같으므로”
6. 실천하며 살고, 회개하고 살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명: 박나경

1. 소문은 잘 들었지만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2. 학교에서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3. 헌신적이고 사랑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좋았고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구나 생각했고 너무 삶에 지쳐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받고 서로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숨김없이 자신을 고백하고 생활을 다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참 거짓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좋았습니다.
4. Rollo 시간은 좋은데 그것을 표현하며 그림 그릴 때 잘 표현을 못했을 때 안 좋았다.
5.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었다는 것.
6.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

이름: 김현애

1. 실은 저는 그곳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막연히 그저 좋다고 만 하더군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2. 저희 목사님께서 하도 여러번 간곡히 권하셔서 마지못해 왔습니다.
3.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처음 만난 여러분들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같이 생활 할 수 있었던 일이 좋았습니다.
4. 어떤 때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을 가졌었다.
5. 없음
6.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며 매일 매일이 기쁘고 감사한 것. 특히 저의 교만과 의심의 갈등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함

이름: 김미숙

1. 대부분이 알팍한 감정변화여서 깊은 신앙으로 이어져 지속화되지 못하고 단순변화로 생각했고 성령체험한 자는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2. 신학생이니까 봉사 차원으로 간다고 승낙 내지는 동의 한 것이었다.
3. 오랜만에 세상사중에 휴식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걸 핑개치고 물가에 나가 놀았다는 기분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의 정성은 더 할 나위 없이 고맙고 또한 희생적이지 않았나 싶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4. 이러한 상태를 안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
5. 선물이 다양한 것 그 자체는 좋으나 많은 것이 낭비인 것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돌아가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골라 몇 가지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6. 아직 없는 것 같다.
7. 봉사가 값지고 귀함을 알았다 짹짹한 프로그램 정말 좋았다. 그러나 저녁식사 후는

각자 산에 흩어져서 기도시간을 가졌으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을 텐데, 아쉬움도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김만홍. 평신도 혁명.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00.
-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학연구회 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 노상헌. "이혼과 사회심리적 요인." 목회와 신학. 2001년 9월호.
- 노용찬. "사례로 본 교회 안의 이혼." 목회와 신학. 2000년 5월호.
- 도은미. "이혼의 갈등을 겪는 교인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00년 5월호.
-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 박숙자.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7.
-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 박희민, 박장수. 나성영락교회 가정목회비전. L. A.: 나성영락교회, 2000.
- 송성자. "한국 가족문제와 가족치료." 가족치료총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편. 서울: 동인, 1999.
- 여상기. "21세기 목회경영과 평신도사역." 크리스천 헤럴드. 1999년.
-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 이관직. "이혼의 증상들과 목회적 치료책" 목회와 신학. 2000년 5월호.
- 정태기.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 1998.
- 조태기. 평신도를 목회의 파트너로 삼아라. 서울: 나침반, 1999.
-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1983.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서울: 두란노, 2000.

2. 번역서적

- Adams, Jay E.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김성혜, 김성희 공역. 서울: 베다니, 1994.
- Balswick, Jack O. 크리스찬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 Bilezikian, Gilbert G. 공동체 101(Community 101). 두란노 출판부 옮김. 서울: 두란노, 1999.
- Clinebell, Howard J., Jr. 현대목회상담(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Collins, Garry. 크리스천 카운슬링. 피현희, 이혜란 역. 서울: 두란노, 1980.
- Crabb, Larry. 상담과 치유공동체.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 Elliott, Charles. 신국과 영성(Praying The Kingdom). 전병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Foster, Richard J. 돈, 섹스, 권력(Money, Sex & Power). 김영호 역. 서울: 두란노, 1985.
- Guthrie, Donald. 신약신학(New Testament Theology). 정태원, 김근수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 Hart, Archibald D., Gary L. Gulbranson, and Jim Smith, eds. 목회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Mastering Pastoral Counseling). 김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4.
- Kee, Howard Clark. 새 시대의 공동체(Community of the New Age). 서중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Kraemer, Hendrick.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Neighbour, Ralph W., Jr. “셀 교회 정신이 중요합니다.” 목회와 신학. 2001년 3월호.
- Ridderbos, Hermann. 바울신학(Paul). 박영희 역. 서울: 지혜문화사, 1985.
- Sell, Charles M. 가정사역(Family Ministry). 양은순, 송헌복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Siang-Yang-Tan. 평신도 상담자(Lay Counseling). 미션월드라이브러리 편집부 옮김.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 Snyder, Howard. “복음화에 의한 세계화를 이루어야합니다.” 목회와 신학. 2001년 7월호.
- Stevens, R. Paul,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The Equipping Pastor).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 Stockstill, Larry. 셀목회로 부흥하는 교회(Cell Group Ministry).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0.

Watson, David.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3.

Willard, Dallas.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목회와 신학. 2001년 7월호.

3. 외 국 서 적

Ackerman, Nathan. Marriage: For and Against. New York: Hart, 1972.

Brown, Leslie and Winifred. The Christian Family.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9.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Cooper, David. Death of the Family. New York: Random House, 1971.

Ennis, Patricia. The Third Option: Support Group for Hurting Marriages Manual. Syracuse, N.Y.: Roman Catholic Diocese of Syracuse, The Third Option, 1989.

Fairchild, Roy W., and John Charles Wynn. Families in the Church.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1.

Garland, Diana R. Family Minist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9.

Hawthorne, Garald F., and Ralph P. Martin,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Hodge, A. A. Outlines of Theology. London: The Banner of Truth, 1972.

Hunt, Richard & Joan. Caring Couples Network Handbook. Nashville, T.N.: Discipleship Resources, 1996.

Icenogle, Gareth Weldon.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Illinois: IVP, 1994.

Küng, Hans. The Church. New York: Image Books, 1967.

McGinnis, R. H. Marriage Ministry: Crossing Out Divorce. A Pastor's Manual.

_____. "Marriage Ministry. A Couple to Couple Ministry: Crossing Out Divorce" (pamphlet).

McManus, Michael J. A Manual to Create A Marriage Savers Congregation .

- Potomac: Marriage Savers, 2000.
- Nouwen, Henri J. M. Clowning in Rome: Reflections on Solitude Celibacy, Prayer, and Contemplation. Garden City: Image, 1979.
- O'Connor, Elizabeth. Journey Inward, Journey Outward. New York: Harper, 1968.
- Ogden, Greg. The New Reform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92.
- Peck, M. Scott. The Different Drum: Community Mading and Peace. New York: Touchstone, 1988.
- Shorter, Edward.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1975.
- Stott, John. One Peopl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1.
- Stott, John. The Epistles of John. Grand Rapids: Eerdmams, 1975.
- Synder, Haward A. The Radical Wesley and Patterns for Church Renewal .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0.
- Tobin, Brian G. "Family: Concept and History." Encyclopedia of Family Life. Vol. 2. Edited by Carl L. Bankston III. Pasadena, Calif./Hackensack, New Jersey: Salem, Inc., 1999.
- Webber, George W. Congregation in Mission. New York: Abingdon, 1987.
- Weiman, Regina. The Modern Family and the Church. New York: Harper, 1937.
- Wilson, Rod. Counseling and Community. Waco: Word, 1995.
- Yorburg, Betty. Changing Famil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Vita of
Byung Sang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he Sea kwang Missio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10, 18, 1946

Marital Status: Married to Esther Yun Lee

Home Address: 339 N, highland st Orange Ca, 92867

Phones: 714) 532-2875

Denomination: Assembly Of God International

Ordained: January 31, 1997

Education:

B. A.: Dan Kook University, Seoul, 1974

M. Div.: Haggard School of Theology Azusa Pacific University,
1995

Professional Membership/Academic Honors:

A Member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Society in L.A.